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5

K O R E A N
W E A L T H
R E P O R T
17th EDITION

PROLOGUE

은행장 추천사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는 우리사회의 자산가들이 어떻게 부를 형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전략, 영리치의 투자성향,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등 다양한 금융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자산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다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부의 설계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국내최초로 도입한 하나은행의 PB서비스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동안 하나은행은 손님 한 분 한 분의 니즈에 맞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손님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더욱 깊이 있는 자산관리와 혁신적인 서비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은행장 이 호 성

손님이 바라보는 길, 오직 그 **하나**를 위해



Euromoney

2025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The Banker/PWM

2024 아시아 최우수 PB은행 - PB교육 및 육성부문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Global Finance

2025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PBI(Private Banker International)

2024 북아시아 우수 PB은행

2024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및 Rising Star

전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자산관리 파트너,
하나은행이 내일의 더 큰 기쁨으로 손님께 보답하겠습니다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CONTENTS

06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HIGHLIGHT**

PART 1 | **INSIGHT**

- 18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 28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 32 부자의 금융 포트폴리오
-

PART 2 | **FOCUS**

- 40 부의 미래, 영리치의 투자법
 - 56 가상자산 투자, 도박인가? 도전인가?
 - 70 AI 자산운용·투자 서비스
-

PART 3 | **SPECIAL**

- 78 부자의 결혼

I.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경기전망

부정적 경기전망,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

"실물경기 악화"

⇒ 75%

"부동산경기 악화"

⇒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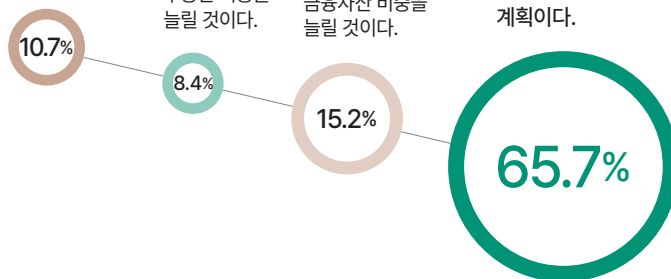
향후 1년 자산구성 계획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은 유지,
투자 내용은 바꿀
것이다.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부동산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대체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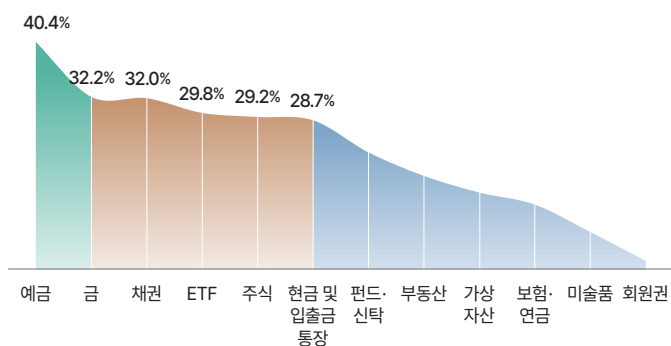
자산운용계획

2025년 수익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

불확실성 속 분산투자로 리스크 최소화

- 1순위: 유동자산 확보를 위한 '예금'
- 2순위: 불확정 투자상품의 대표적인 '금'
- 3순위: 금리인하 기대, '채권'
- ETF와 주식에도 고르게 분산투자
- 5~10%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48%)

2025년 투자의향(있음+매우있음)



부동산은 양보다 질, 때를 기다리는 중

- 부동산 매수 의향 줄고, 매도 의향 상승
- 다주택 보다 고급 주택 한 채를 유지하고 금융 투자를 다양화 하려는 전략



Ⅱ. 2024년 부자의 포트폴리오 회고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증가세 지속

- 2023년 46%에서 2024년 49%로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세
- 예금과 주식이 금융자산의 1/3을 차지하며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2023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8%→13%)

금융투자 수익률 개선

- 부자의 3/4은 금융투자로 플러스(+) 수익
- 10%이상 수익자 비중도 8%에서 12%로 증가
-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은 예금, 주식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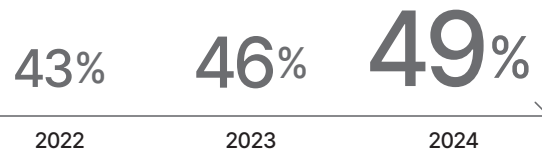
해외주식과 ETF 투자의 확대

- 해외주식 보유자 비중(48%→54%)과 보유 주식 중 해외주식 비중(16%→22%)이 모두 증가
- 부자의 약 40%가 ETF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년새 보유자 비중이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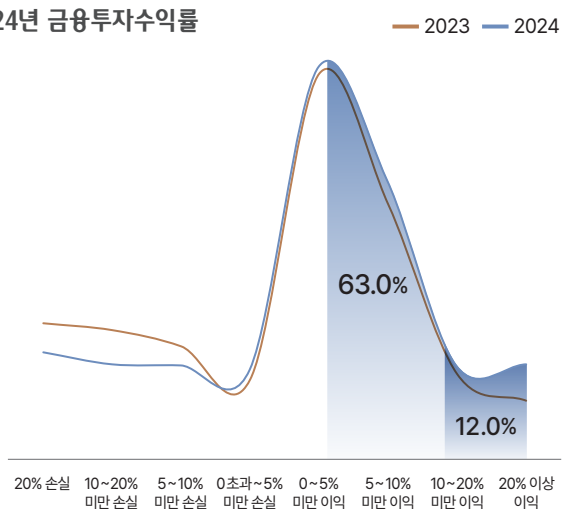
채권투자의 매력 지속

- 금리인하시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와 절세를 목적으로 채권 투자를 확대하며 전년동기 대비 보유자 비중이 증가(3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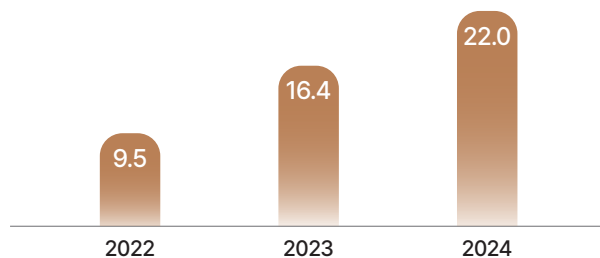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추이



2024년 금융투자수익률



해외주식 비중(%)



I. 부의 미래, 영리치의 투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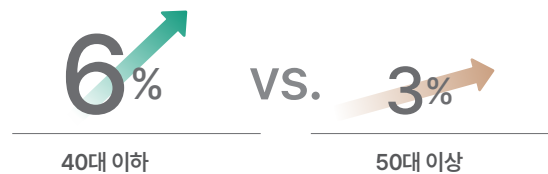
1. 영리치의 규모

영리치는 올드리치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

- 40대 이하 영리치 손님 수는 올드리치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

2020년~2024년 부자 손님의 연평균 증가율 *하나은행 손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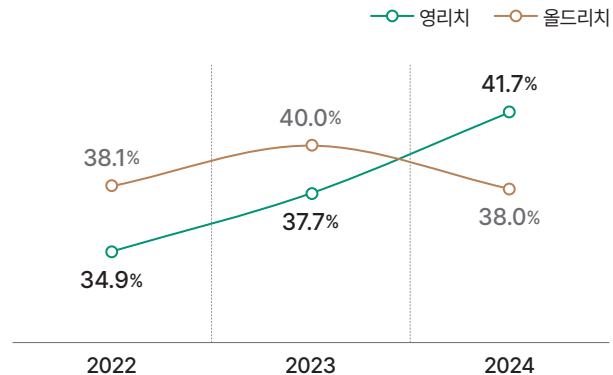


2. 영리치의 자산운용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으로 자산 증식, 투자에 진심

- 최근 3년간 영리치의 투자자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올드리치보다 투자자산 비중이 더 높아짐
-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투자하려는 강한 의지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자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21%

투자자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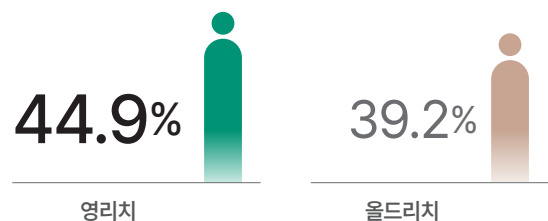
투자에 대한 자기 확신!

先 공부 後 투자

- 온라인 커뮤니티/모임(47%)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유료서비스에 가입(7%)해 차별적 정보를 얻는 활동이 올드리치보다 3~4배 높음

투자 관련 태도(그렇다+매우그렇다)

관심상품/분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투자를 시작한다



3. 영리치의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 가상자산,
실물자산 투자는 뜨고,
펀드, 채권, 회원권 투자는 지고!**

-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는 주식, 가상자산, 실물자산(금, 예술품 등)을 선호
- 펀드, 채권, 회원권은 올드리치에 비해 관심이 낮음

**주식 네이티브,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 영리치가 미성년 시절 주식투자를 시작한 비율은 올드리치의 5배 수준
- 올드리치보다 해외주식을 더 선호해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이 70:30 (올드리치는 80:20)

영리치의 금융자산 중
저축/투자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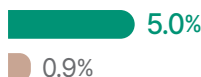
		영리치	올드리치
영리치 보유 상위	주식(ETF 제외)	77.8%	66.4%
	가상자산(코인)	28.7%	10.0%
	실물자산(금, 예술품 등)	40.7%	37.7%
올드리치 보유 상위	펀드·신탁	44.3%	58.6%
	채권	30.5%	45.7%
	회원권(골프장, 호텔 등)	16.8%	23.3%

주식 시작 시점

■ 영리치 ■ 올드리치



미성년/학창시절



대학 입학 후/취업 준비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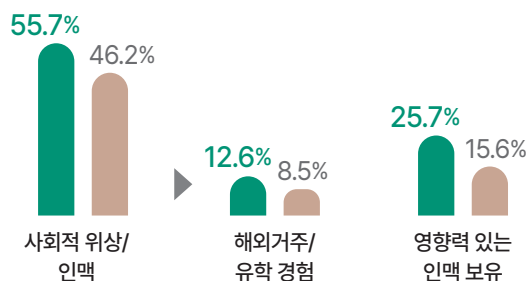
영리치의 부에 대한 인식

사회적 능력을 중시하는 영리치

- 부자의 경제적 기준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영리치나 올드리치 간 인식 차이가 없으나 자산 외 부자의 요건에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 영리치는 올드리치보다 학력, 직업, 유학경험 등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중시

자산 외 부자의 요건 (복수 응답)

■ 영리치 ■ 올드리치



II. 가상자산(코인) 투자, 도박인가? 도전인가?

1. WHO? 누가 투자하는가?

스스로 투자에
자신있는

4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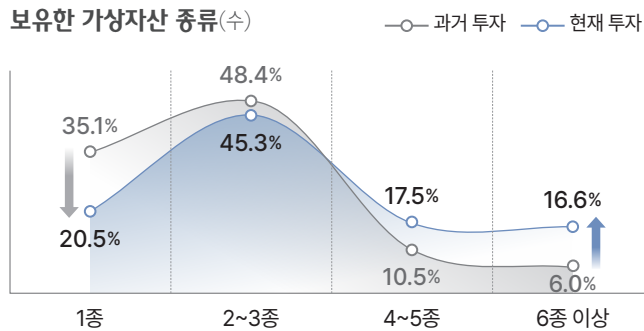
대중부유층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남성

2. HOW? 어떻게 투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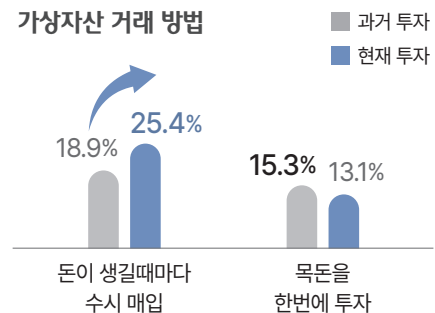
가상자산 보유자의 1/3은 4종 이상 코인으로 분산투자

- 과거대비 단일 코인 보유자는 줄고 4종 이상 보유자는 증가



목돈 매매보다 수시 매매로 시점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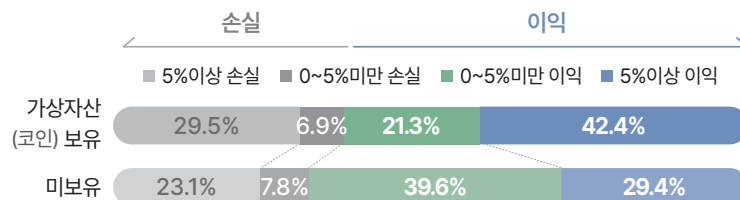
- 과거대비 목돈 투자 비율 줄고 수시 매입 비율 증가



How Much? 투자 성과는 어떠한가?

- 가상자산 보유 시 미보유자보다
고 수익자 많지만 큰 손실
경험자도 더 많아

가상자산(코인) 보유 여부에 따른 2024년 금융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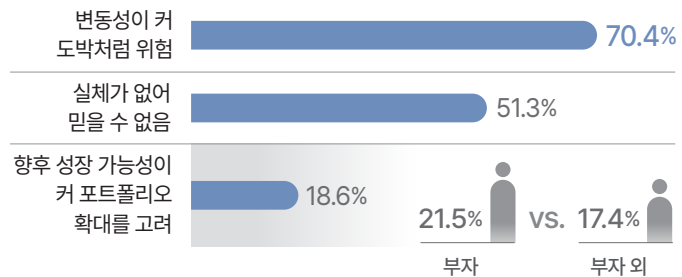


3. WHAT?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무엇인가?

모두가 위험성에 동의하지만 부자는 발전 가능성 염두

- 일반대중이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출 때 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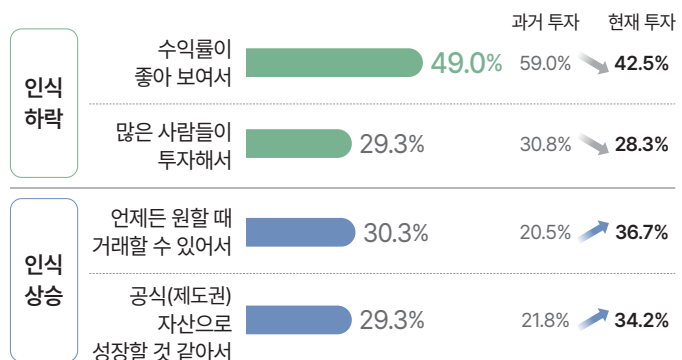


4. WHY? 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가? 향후 계획은?

수익률+주변 영향은 하락, 투자 접근성+성장 가능성 영향은 증가

- 과거에 비해 자기 확신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져 시장의 성숙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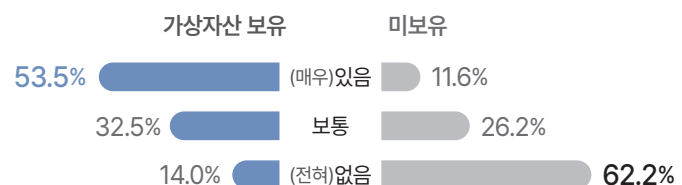
가상자산(코인) 투자 경험자의 투자 관심 및 거래 계획



투자자 10명 중 9명이 투자 유지+미투자자 10명 중 1명이 신규 의향

- 향후 1년간 가상자산 신규거래보다 기 거래자 중심으로 투자 확대
- 40대 이하, 금융자산 많을수록 투자의향 상승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향후 1년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향



Ⅲ. 내 자산관리를 AI에게 맡겨도 될까?

AI를 활용한 자산운용/투자관리 현황과 전망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아이(AI)

- 부자의 80% 이상은 AI 기반의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무
- 사람과 상호작용이 아닌 디지털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이 원인

“AI가 추천, 진행하는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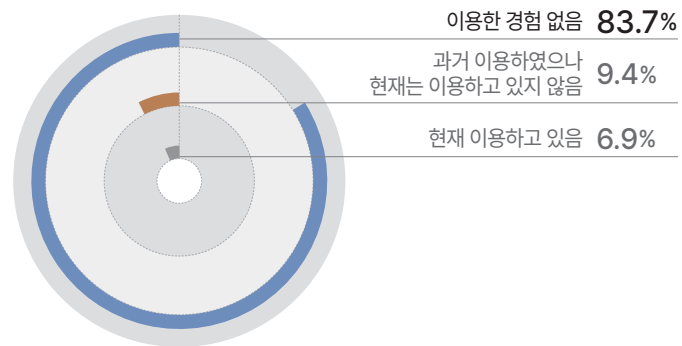
심리적 허들 넘기

- AI 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비경험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경험자 수 증가 시 신뢰감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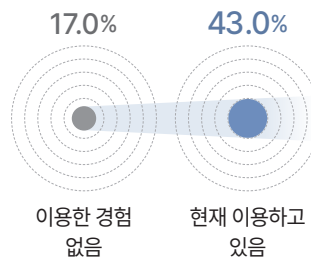
AI자산관리의 미래

- 절세나 세무 상담, 포트폴리오 분석 시 AI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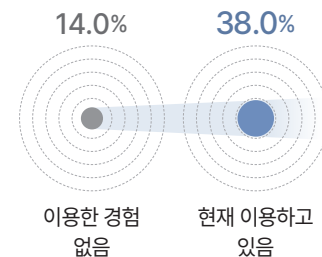
AI를 활용한 자산운용/투자관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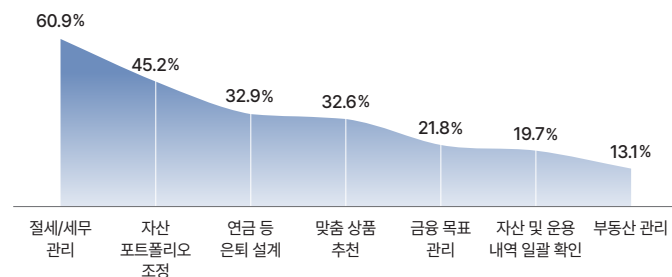
AI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AI 자산관리 서비스가 금융 전문가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



AI 활용 서비스 기대 분야



부자의 결혼

Part1. 결혼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 선택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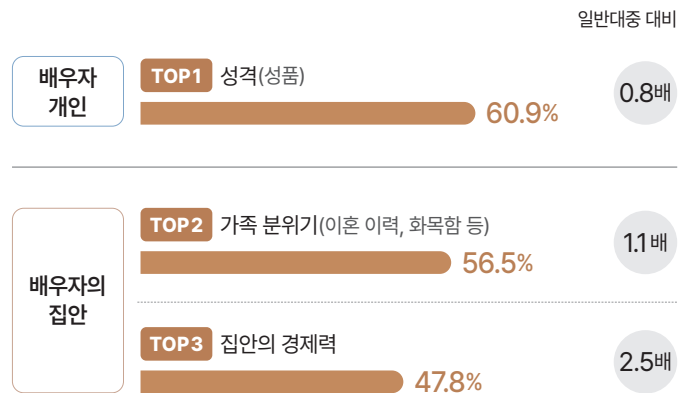
부자는 일반대중보다 '결혼은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에 동의

- 부자는 결혼 및 출산 필요성에 일반대중보다 더 긍정적

결혼은 현실! '배우자 소득'보다 '집안의 경제력'이 더 중요

- 일반대중보다 배우자의 집안을 더 많이 고려
- 배우자의 소득(26%) 보다 집안의 경제력(48%)을 중시
-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본다는 응답도 일반대중보다 15배 높음

배우자 선택 시 필수 요건 (복수응답)
부자의 배우자 요건 To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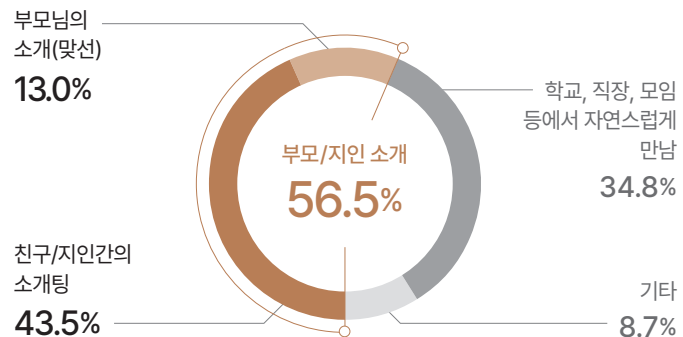


Part2.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만추 보다 소개팅이나 맞선!

- 부자 10명 중 6명이 친구나 지인, 부모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남
- 일반대중은 소개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보편적

배우자 만남 계기



부자의 결혼

일반대중보다 '집안'을 위한 지출 ↑

- 부자는 일반대중보다 예단, 이바지 등 '집안'을 위한 항목에 더 많이 지출
- 일반대중은 웨딩촬영, 드레스·메이크업, 혼수 등 '당사자'를 위해 더 많이 지출

결혼관련 지출 항목

'집안'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

'너와 나' 당사자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

부자가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	일반대중이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
신혼집·인테리어	웨딩촬영
예물	혼수
예단	상견례
이바지	드레스·메이크업

* 부자와 일반대중간 10%p이상 차이나는 항목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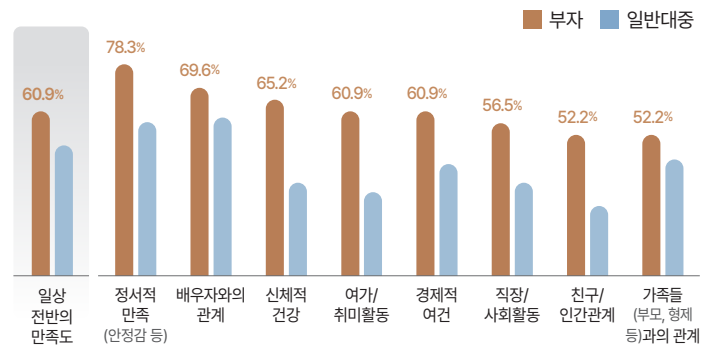
축하금 얼마나 받을까?

상황별 자녀/손자녀에게 준 축하금

		
손자녀 임신/출산 축하금	자녀 또는 사위/며느리 생일 축하	손자녀 졸업/입학 축하
1,212만원	264만원	361만원

결혼 후 일상 만족도는?

결혼 후 일상 생활의 만족도 변화(좋아짐+매우좋아짐)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Dr.터



관리부터 수익률까지! 퇴직연금은 하나로 오세요

‘23년, ‘24년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2년 연속 우수사업자 선정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1599-2080

연금 VIP손님을 위한
연금 더드림 라운지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연금컨설턴트

1:1 전문상담
연금손님관리센터

하나은행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수수료(우취)는 운용관리수수료(연0.003%~0.25%), 자산관리수수료(연0.018%~0.2%)입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564호(2024.11.28~2025.10.31)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광고-1380호(2024.12.03~2025.10.31) / CC브랜드 241204-0036

PART 1

INSIGHT

-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 부자의 금융 포트폴리오

THE RICH'S ECONOMIC OUTLOOK

부자의 경기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2025년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국내 정치적 불안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된 가운데
부자들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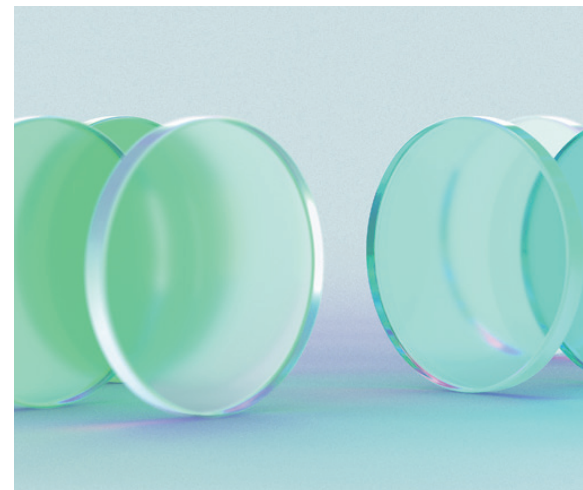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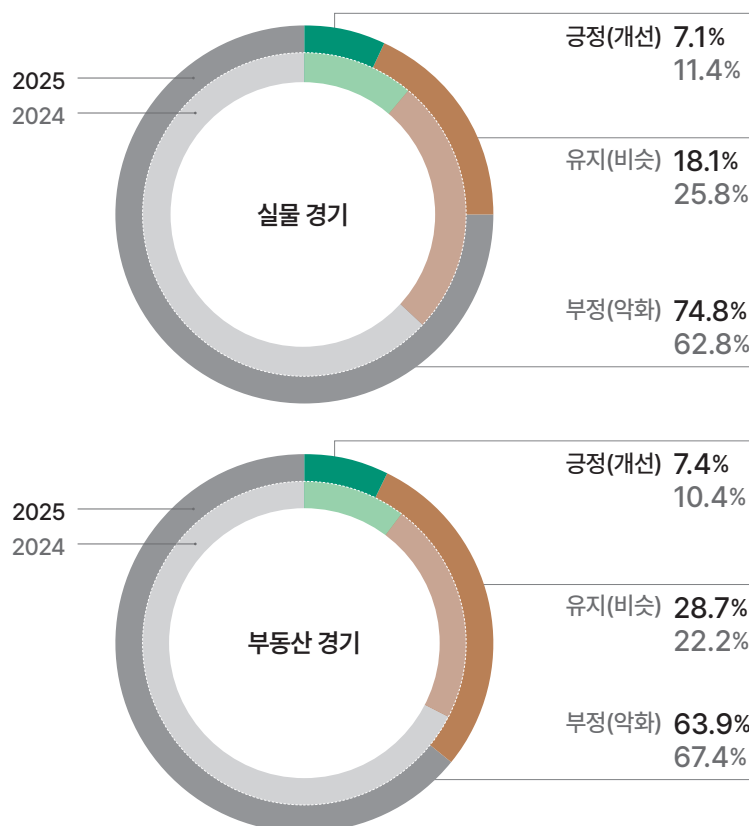
실물경기 전망 개선세 꺾여, 부동산 시장은 관망 지속

부자 10명 중 약 8명이 올해 실물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예측보다 부정적 시각은 10%p 이상 증가했고 긍정적 시각(중립 포함)은 10%p 이상 감소한 결과다.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이른 가운데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라는 변수가 미친 심리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부자의 시각은 어떨까? 부자의 절반 이상이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3년 연속 그 비중은 감소(84% → 67% → 64%)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 즉,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부정 의견이 모두 감소하고 대신 중도적 의견이 크게 증가(12% → 22% → 29%)한 것이다. 2023년만 해도 부자 10명 중 1명만이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2025년에는 3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 기대감, 대출 규제 강화 등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다보니 부자는 2025년 부동산 경기가 2024년보다 부정적이진 않지만 선불리 나설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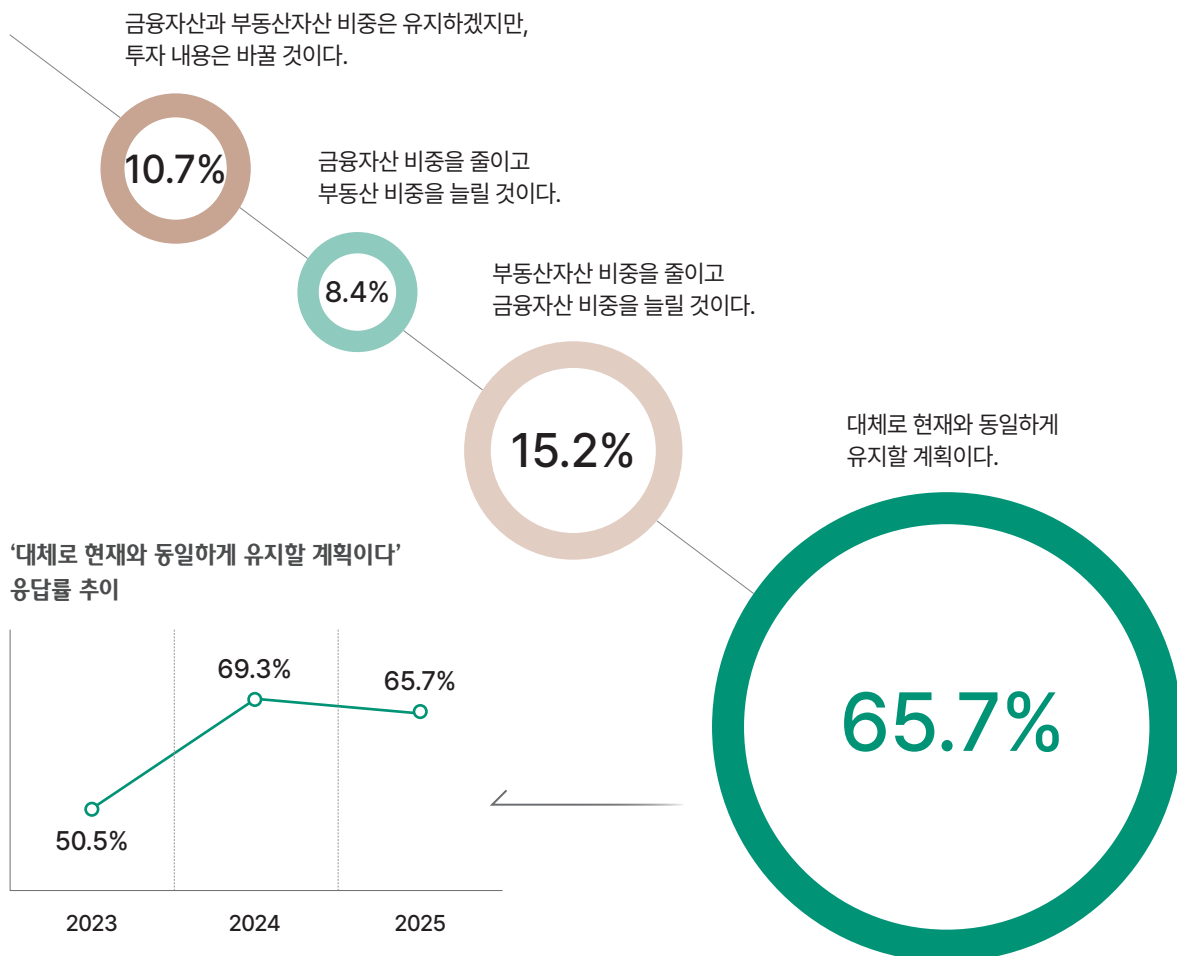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모두 얼음!

엔데믹 이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부자의 비중이 50%에서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부자의 절반 이상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만큼 자산 구성 변경에도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부자의 1/3은 자산 리밸런싱 의향을 보였고, 특히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초점을 맞춰 조정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가 15%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은 유지하되 세부 구성을 바꾸겠다'(11%),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리겠다'(8%) 순이었다.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부자가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부자의 2배 수준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보아도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늘고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줄었다.

실물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부자가 늘고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자들은 2025년을 부동산보다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운용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1년 자산구성 계획



2025년, 수익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올 한해 경기전망이 밝지 않았던 만큼 부자들은 자산운용시 수익보다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 등 실물자산, 가상자산, 미술품을 포함해 12개의 주요 자산을 제시하고 투자 의향을 조사한 결과 보험·연금을 제외한 금융상품 투자 의향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부동산 투자 의향(20%)은 후순위였다. 그동안 금융보다 부동산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부동산을 활용한 부의 증식에 익숙한 부자들이 2025년에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 보다 낮은 의향을 보인 자산은 보험·연금 이외에 가상자산, 미술품, 회원권이 있었다. 해당 상품은 기 투자자의 활용 의향은 높으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품임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금융자산 운용

2025년은 불황형 투자! 금, 채권, ETF에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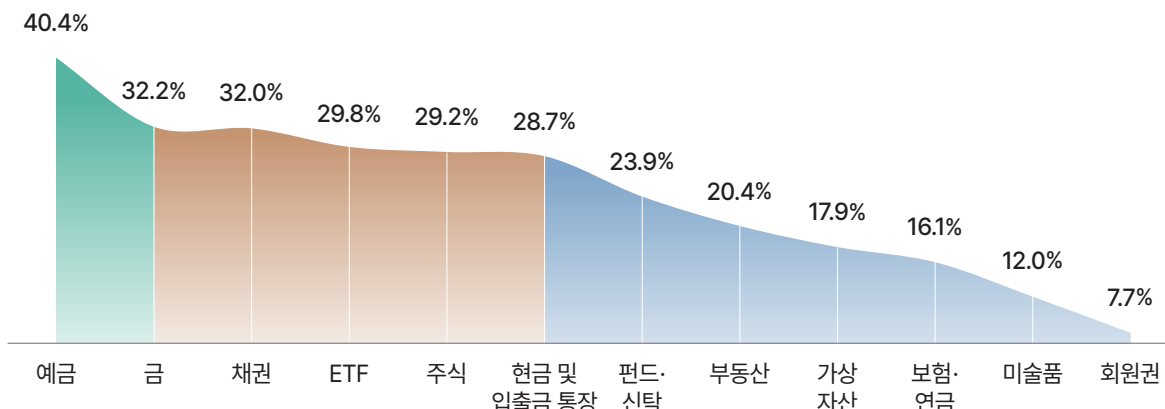
2025년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대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40%)이 차지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유동자산을 확보해둘 목적으로 부자 10명 중 4명은 예금 가입 의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 불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불황형 투자 상품'의 대표격인 금(32%)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채권(32%) 역시 투자 의향이 높았는데, 아직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부자들도 새롭게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응답이 타 상품 대비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경향을 보이므로 부자는 2025년 금리 인하를 예상해 수익 관리 차원에서 채권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닌가 추측됐다.

그리고 직접 투자하되,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 보다 지수(index)를 추종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선호가 높았고, 주식(29%)을 통한 직접투자 의향도 바투 이어졌다.

2025년 투자의향이 높은 상위 5개(예금 외 금, 채권, ETF, 주식, 입출금 통장) 상품은 그 선호 정도가 매우 유사하고, 안정형/저위험 투자 상품들로 고루 분포돼 불확실성 속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부자의 투자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2025년 투자의향 (있음+매우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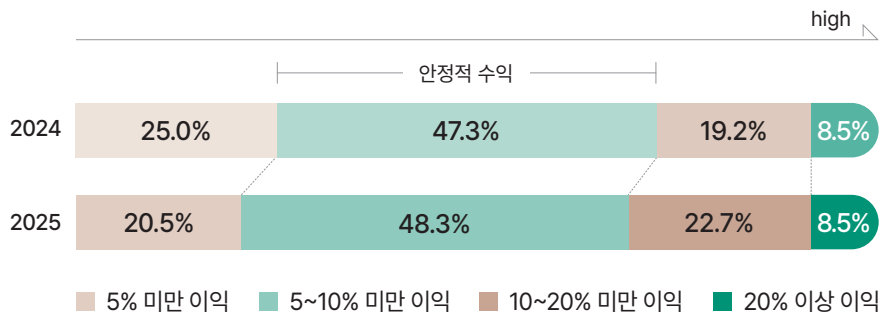


금융 수익은 5~10%를 기대하지만 해외주식, 가상자산 투자 시 고수익 기대

부자는 이전 결과와 동일하게 2025년에도 절반 가까이가 5~10%의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경기전망 시각에 따라 목표 수익률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비중은(9%) 변화가 없으며, 안정~중수익을 기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p, 4%p 상승했다. 또한 5% 미만의 보수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감소해 평균적으로 금융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소폭 상승한 셈이었다.

목표 수익률의 상승에는 부자 중 가상자산이나 해외주식 보유자의 기대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는 20% 이상 고수익을 기대하는 비중이 각각 23%, 13%로 전체 평균(9%) 대비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2025년 금융투자 목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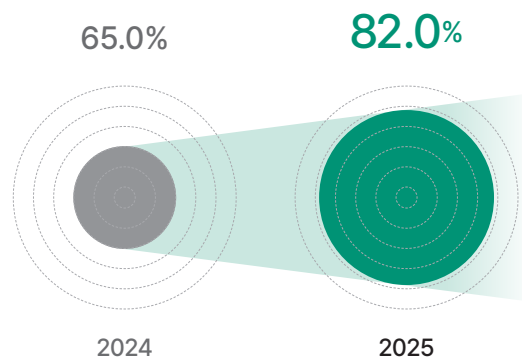


지난해 해외주식 보유자, 고수익 거둬

2024년과 비교해 부자의 자산관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화자산' 보유 의향이 증가(65%→82%) 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의 영향이 크지만 외화 ETF와 외화표시채권 보유 의향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부자의 56%가 올해 해외주식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4년(20%) 대비 대폭 상승한 결과다. 해외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자의 경우 추가 보유의향이 100%였다. 2024년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자 중 20% 이상 고수익을 낸 비중은 12%로 미보유자(6%)의 2배 수준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또한 올해 부자는 해외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75:25에서 60:40으로 조정할 의향을 보였다. 투자할 분야로는 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과 반도체와 같은 정보기술 분야를 우선 고려했다.

외화자산 보유의향 "있다"





30대 남, 사업

“금융자산의 95%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해외주식이 100%입니다. 국내보다 미국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도 해외주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40대 여, 약사

“주식 90%, 예금 10%. 주식은 미국주식 90%, 국내주식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불안해서 미국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고, 당분간 국장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미래가 궁금한 초고위험 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증가한 가운데(2023년 9.9% → 2024년 13.6%) 올해 부자의 18%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연금(16%)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자의 경우 올해도 투자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높았으나, 미보유자의 신규 투자여향은 그보다 1/5 수준으로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와 비 경험자 간 투자여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가상자산 기보유자의 투자 확대 여향이 높은 것은 지난해 부자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률 평균이 약 90%에 달했고 손실을 본 부자는 10%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미국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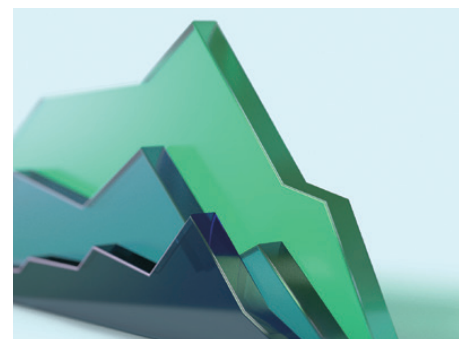
30대 남, 사업

“국제 금융에서 결제나 송금을 담당하는 알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 400%예요. 가상자산은 전통금융과 배치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금융과 결합되어 지금보다 정착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안목이 곧 수익률! 수익률 기여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절제나 심미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미술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해 부자 10명 중 1명 정도가 미술품 투자 여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결과이지만 3천 만원 이상의 예산을 미술품 투자에 고려중인 부자가 증가해(49.8%→54.7%) 투자 예산은 지난해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다. 미술품 투자는 아직까지 시장이 보편화 되지 않고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이미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의 투자 여향(29.2%)이 2배 이상 높았다.

미술품 투자는 상당한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익 또한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자의 안목이 투자 성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꼭 투자 목적이 아니어도 심미적 만족과 취미로서 미술품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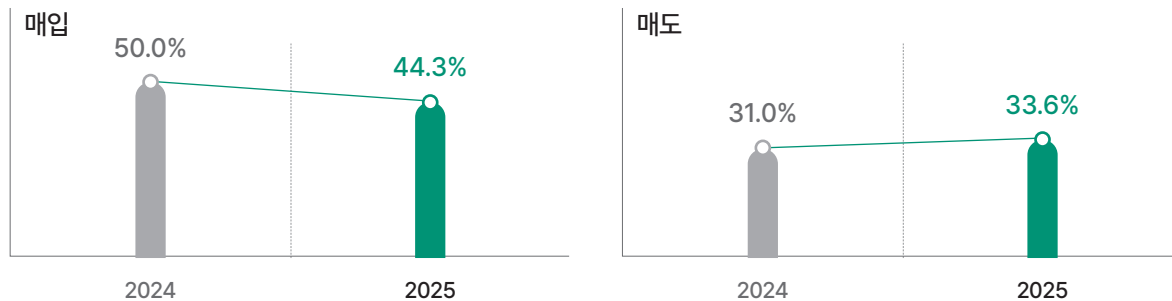
2. 부동산 자산 운용

‘때’를 기다리는 중

2025년 부자의 부동산 매입(매수) 의향은 2024년 50%에 비해 2025년 44%로 감소했고,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추가 매입 의향은 42%로 평균(44%) 보다 낮을뿐 아니라 2024년(49%)에 비해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동산 보유자의 매도 의향은 2024년 31%에서 2025년 34%로 소폭 증가했다. 향후 수익 확대 기대가 낮거나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다음 기회를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수 있다. 또한, 부동산보다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려는 의향이 높았던 만큼 **다주택보다 고급 주택 한 채를 유지하고 금융 투자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자의 부동산 매매 의향



PB

"대출 규제에 거래 둔화가 본격화된 2024년 연말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울스톱된 느낌입니다. 2025년 초까지 거래 둔화로 약보합 국면이 지속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면서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부자에게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 수익처

2024년에 비해 2025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소 하락했다고 해도 부동산 매수 의향 44%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일반대중(37%)과 비교해 부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24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불안했지만 부자 10명 중 8명은 부동산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거뒀다. 금융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둔 부자(75%)보다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거둔 부자(78%)가 소폭 더 많은 상황이었다. 물론 수익률이 매우 높지는 못했다. 부동산을 활용해 5% 미만 수익을 거둔 부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5~10%의 수익을 낸 비율이 24%로 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부자의 비율은 일반대중(15%p 우위)이나 대중부유층(11%p 우위)보다 월등히 많음은 분명했다. 부자의 자산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동산, 손실없는 투자의 1등 공신인 부동산에서 부자는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며 때를 기다릴 것이다.



하나은행 강남지역 PB

"파킹통장에 (현금)킵해두시고 부동산(아파트)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은행 강남지역 PB

"반포부심이라고 하나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반포를 안떠나시려고 해요. 오히려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자녀들도 이곳에 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이런 곳은 계속 수요가 있으니 가격도 내려갈리가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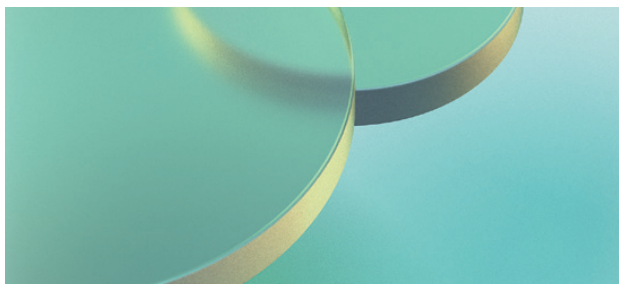
40대 남, 사업

"2025년엔 현재 보유중인 빌딩과 비슷한 규모의 뽕띠빌딩을 소유하는게 목표입니다."



50대 여, 주부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올해도 상가나 아파트를 더 매수해볼까 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기회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센터)

1. 아파트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 & 신축'

서울 강남권과 송파, 판교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수요와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건축비 상승과 토지비 증가로 인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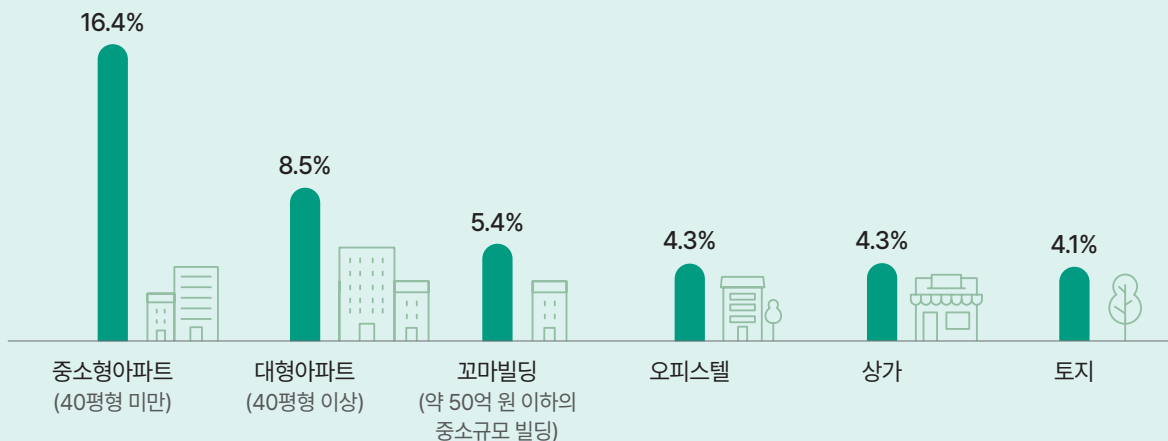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2025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약 4,896세대로 전년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와 같은 IT 중심지에서는 젊은 고소득층의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수도권 핵심 지역은 올 해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된다.

2. 주택공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예상

2025년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보증비율 하향, DSR 규제 적용 이연)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의 영향이 전세가격 상승 압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3만 호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중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신규 공급 물량에 참여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2025년 부자의 매입 의향 부동산



3.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우량 자산을 찾아보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섹터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오피스 빌딩은 낮은 공실률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으로 여전히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물류센터와 중소형 상가는 공실률 증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약 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꾸준하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의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실률이 15%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는 투자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철저한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

4.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의 기회, 경매

2025년 경매 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2024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약 11만 9,312건으로 전년 대비 54%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관리가 어려운 물건 외 다양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약 20% 초반대로 하락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65~70% 수준으로 떨어졌다.

낙찰 가격 하락은 저가 할인 매입 기회를 제공하나 경매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 시세 조사와 권리 분석을 철저히 진행하여 공실 발생 위험 등의 리스크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비용(예: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출이 강화된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 등 자금 조달을 고려하여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50대 여, 주부

"올해는 부동산 경매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경매로 친구가 쏠쏠하게 수익을 보고있더라구요. 직접 공부해서 해보고 싶어요. 친구는 임장도 열심히 다니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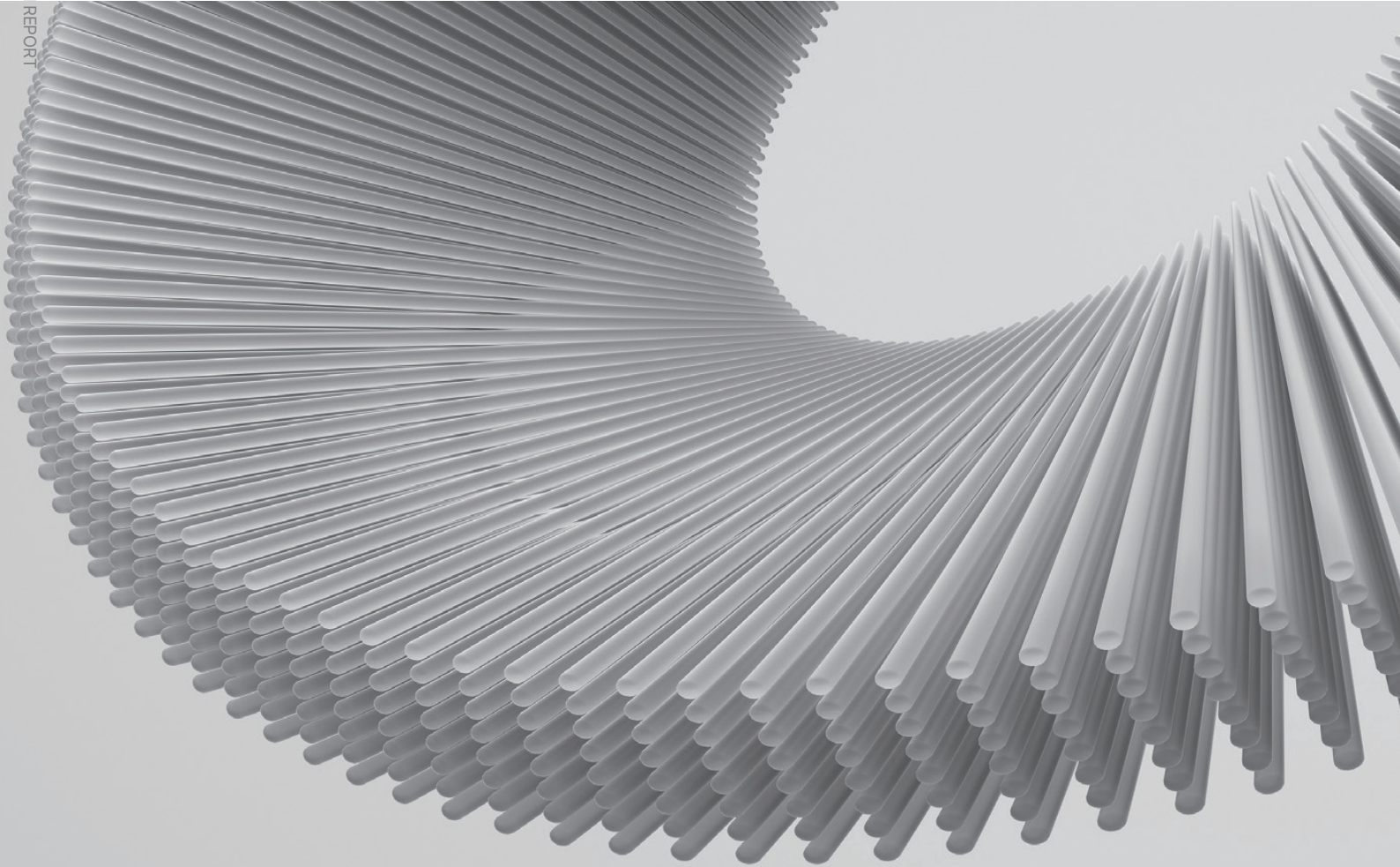


60대 여, 교사

"저는 요즘 경매에 관심 갖고있어요. 남편과 강의도 듣고 유튜브로 정보도 얻고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경기와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PB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은퇴 후 주거지를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상속을 위한 부동산 매각 자금이 금융자산으로 유입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은퇴 부부의 시니어 타운 입주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초고령사회에서 부동산의 활용은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향후 부동산 투자는 경기 상황과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SSET MANAGEMENT TIPS SHARED BY PRIVATE BANKER



하나은행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TIP

부자의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Private Banker들이 생각하는 2025년 금융투자 키워드와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투자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도 들어보았다.

2025년 투자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B



1. 미국주식



“역사적으로 美 선거이후 주식시장은 상승해 왔습니다. 다만 선반영되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시장이라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적립식 또는 분할매수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있지만 우상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한가지 테마를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지수 형태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핵심 키워드일 것으로 보이며, 전력/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 되어있어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업과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와 원전 수리·보수·유지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기업들의 미국내 일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환율 정상화를 고려하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채권



“미국 장기채와 국채는 금리인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성과 환율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채권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으로 외국자본 유입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4. 금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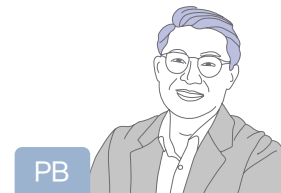


“2025년에도 지정학적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요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고려할 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자산운용시 유의사항은?

" 2025년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물가 등 경기지표와 정책금리의 흐름입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반기 이하 단위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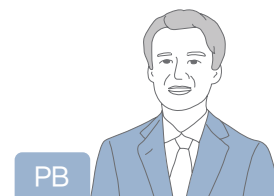
PB



PB

"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경제상황을 살펴 투자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투자 환경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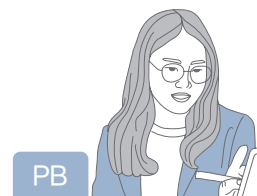
" 국내는 경기흐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 시 일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투자 신규진입은 가능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PB

부자들은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고위험 자산인 만큼 아직까지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부 투자를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PB

"새로운 투자 기회로 인식하고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50~60대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는 아직 규제 대상 자산이라는 현실 때문에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ETF 상장 등 환경이 조성되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젊은 신혼 부자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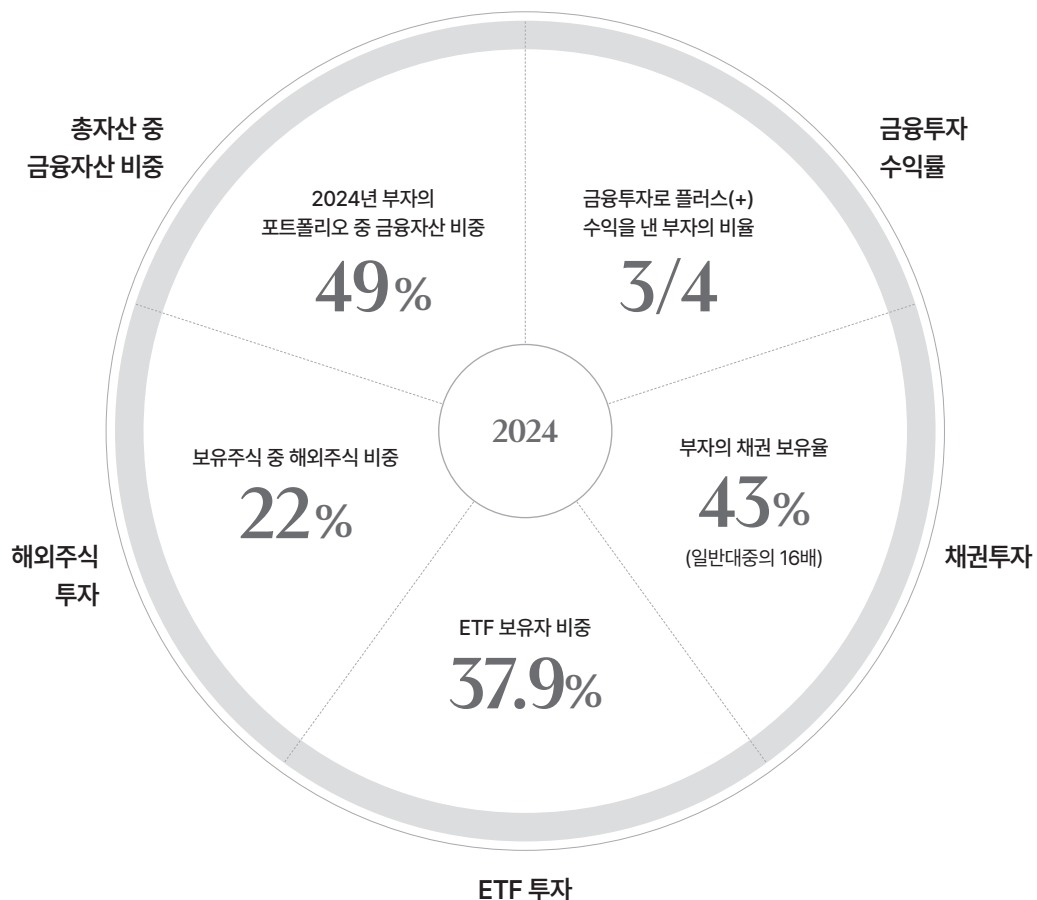
PB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가상자산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향후 지폐 대신 사용될 것으로 지금부터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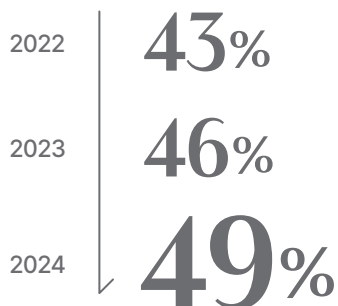
FINANCIAL PORTFOLIO OF THE RICH

부자의 금융 포트폴리오

2024년 부자의 금융 포트폴리오 회고



2022년~2024년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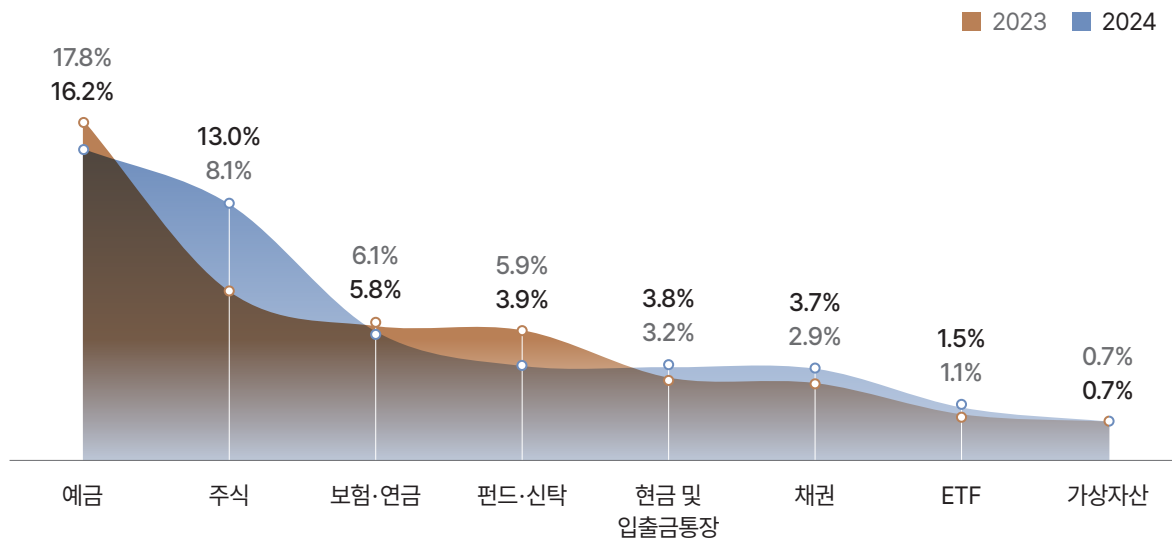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증가세 지속

지난해 부자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49%로 상승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관망세 유지, 금융투자 규모 확대 및 이자·자본차익 등의 투자 수익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2024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예금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16%)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식(13%)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년동기와 비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중 주식(직접투자)의 비중이 8%에서 13%로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예금과의 비중 격차가 감소했다. 반면 펀드·신탁(간접투자)의 비중은 가장 크게(5.9%→3.9%) 감소해 주식이나 ETF 등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세와 자본차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채권의 인기는 2024년에도 지속돼 비중이 증가(2.9%→3.7%)한 모습을 보였다.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미국 금융자산에 투자한 손님들의 자산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 수혜로 인한 이자수익 증대가 금융자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기 예금 및 유동성(MMF, MMT) 상품에서 주식 및 채권으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금융투자로 플러스(+)
수익을 낸 부자의 비율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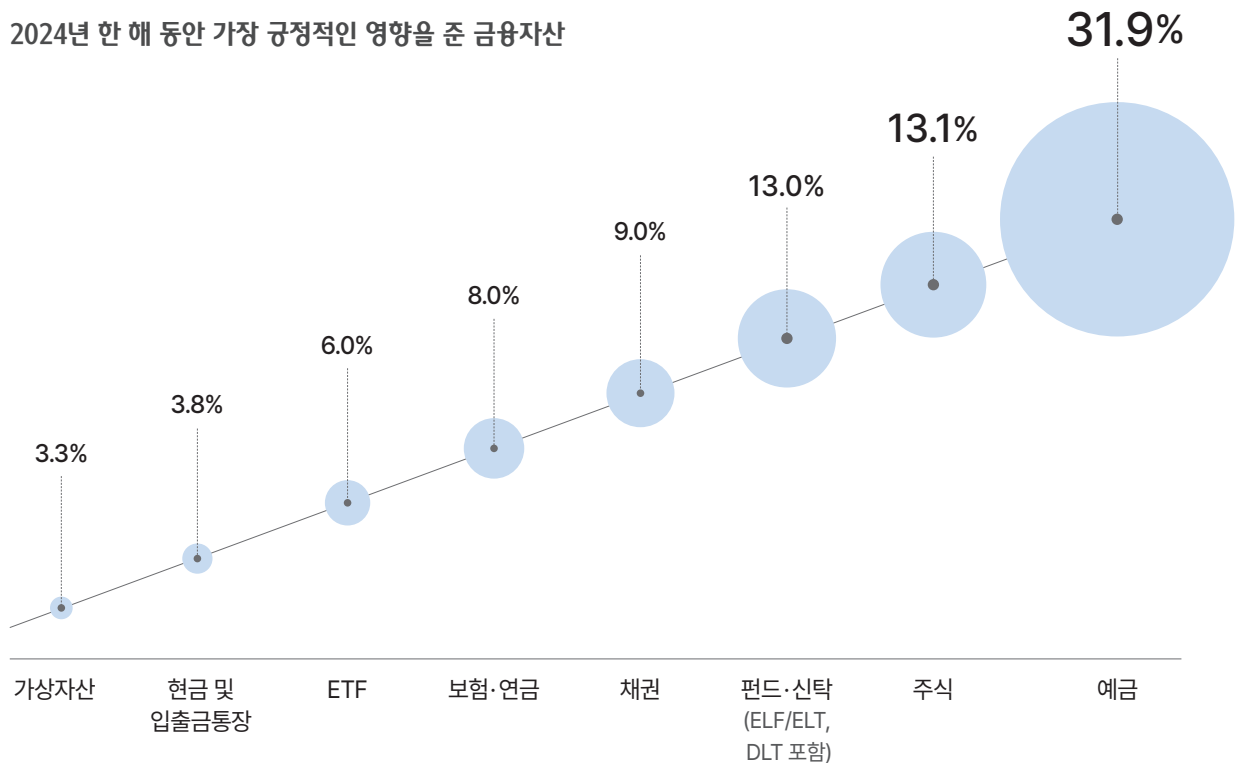
금융투자 수익률 개선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부자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수익을 낸 부자는 증가했다. 부자의 3/4이 금융투자로 플러스(+) 수익을 낸 가운데 10% 이상 수익을 본 부자도 8%에서 12%로 증가했다.

수익률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 자산은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예금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주식과 펀드·신탁의 영향이 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주식과 펀드·신탁이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한 부자의 비중은 줄었고 채권과 ETF, 가상자산이 수익률에 긍정적이었다고 응답 한 부자의 비중은 늘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의 경우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금융자산 1위로 예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꼽았으며 10% 이상 수익을 거둔 비중이 30%로 전체평균(12%)을 크게 웃돌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



보유주식 중 해외주식 비중

16 → 22%



30대 남, 회사원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채권 10억 원 (미국채 8억 원), 주식 1억 원(미국주식), 펀드 1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펀드는 ETF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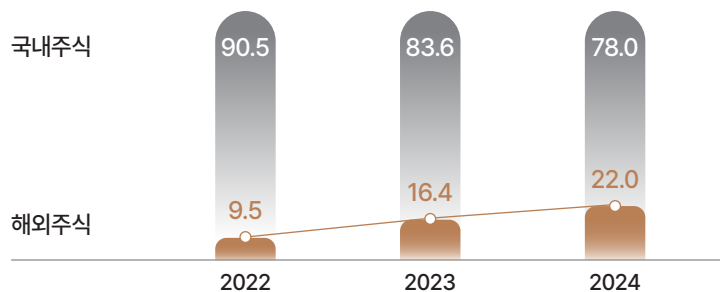
"엔저의 지속과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미국 국채 ETF 상품 등에 가입하는 방식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해외주식과 ETF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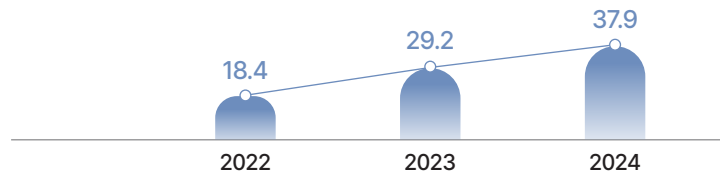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해외주식을 보유한 부자가 증가(48%→54%)했다. 보유주식 중 해외주식의 비중도 16%에서 22%로 증가했으며, 40대 이하의 영리치는 31%를 해외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국장 이탈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주식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주식을 포함한 해외 증권 투자는 미국 대선 이후 더욱 가속화(\$4.8억→\$34.8억)되었다.

ETF를 보유중인 부자도 약 9%p 증가해 2024년 부자 10명 중 4명이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 2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2023년)대비 보유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산이기도 했다. 국내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했고 현재는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ETF는 향후에도 일부 직접투자 니즈를 대체하며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비중 추이(%)



ETF 보유자 비중 추이(%)



개인의 해외증권 결제금액(\$억, 자료: 예탁결제원)

	'2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매수-매도	33.6	33.2	21.7	3	4.8	34.8	11.9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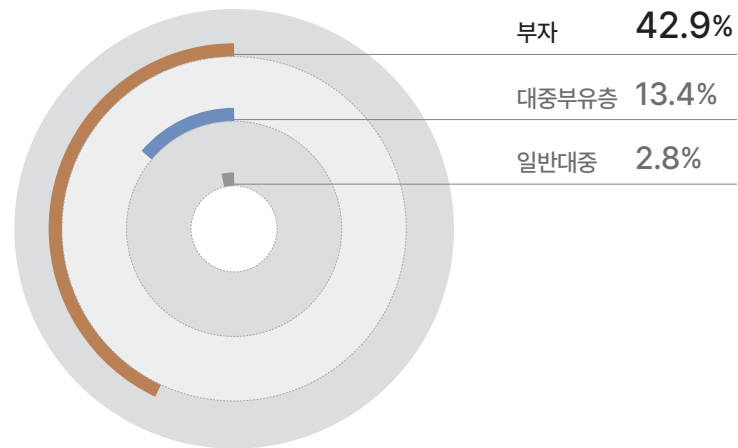


채권투자의 매력 지속

2024년 하반기(9월) 팬데믹 이후 약 4년 만에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금리인하를 예견하며 채권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금리가 내려가면 보유 중인 채권의 가격이 상승해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채권의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미국 채권 투자가 주를 이뤘다. 또한 PB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금융투자세 시행 여부 논란 속 저쿠폰 국내채권 만기 보유 전략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유효했다.

위와 같이 채권 투자의 매력이 지속됐던 2024년 중 부자의 43%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유자 비중이 늘었으며 (36%→43%) 일반대중의 16배 수준에 달하는 결과였다. 물론 채권의 특성상 대부분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가 투자하고 있지만, 지난해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로 일반대중의 채권투자도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규모별 채권 보유자 비중



부자에게 매력적인 자산

채 권
BOND



"거액 자산을 채권 상품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그 어느해보다 많았으며, 투자상품에 주식형 자산 그 이상으로 채권형 비중이 늘어났던 한해였습니다."



PART 2

FOCUS

- 부의 미래, 영리치의 투자법
- 가상자산 투자, 도박인가? 도전인가?
- AI 자산운용·투자 서비스

FUTURE OF WEALTH: INVESTMENT STRATEGIES OF THE YOUNG-RICH

부의 미래, 영리치의 투자법



영리치가 가는 길이 곧 부의 미래다

영리치는 수적으로는 열세하나 규모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 부의 세대 전환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영리치의 자산관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영리치의 규모

최근 5년간 영리치 증가율

6%↑



영리치는 올드리치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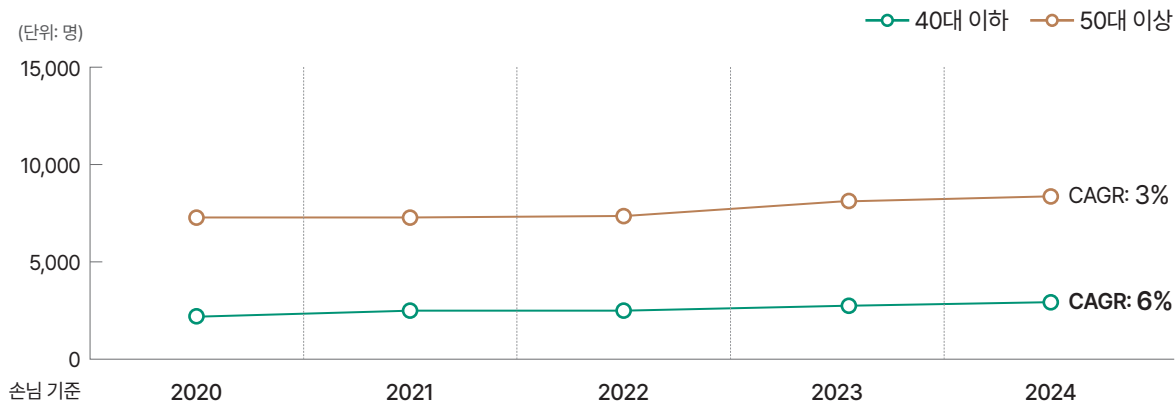
하나은행 손님 중 10억 원 이상 고액을 예치한 손님을 추려보면, 최근 5년간 소위 '부자'의 수는 우상향 증가세를 보였다. 동 기간 총 인구 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손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자 손님의 연령별 구성비를 분석하면,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30%대로 그 다음을 차지해 부의 중추로서 50대 이상 시니어가 주목받는 현 시대상을 반영했다.

그 이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20%대)인데, 2024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40대 인구 수(약 2,100만 명)가 총 인구의 39%임을 고려할 때 40대 이하 젊은 층의 자산 축적 여건은 시니어보다 열세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자 손님 중 40대 이하의 증가율은 50대 이상보다 훨씬 가팔랐다. 하나은행 DB에 한정적이지만 40대 이하 손님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6% 이상씩 증가해 50대 이상 연령대보다 2배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부자 손님*의 연령별 증가 추이



*하나은행의 10억 원 이상 예치 손님 기준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2'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하 부자를 '영리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그 규모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젊은 부자,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자의 반열에 올라 미래의 부를 이끌어갈 영리치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부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리치의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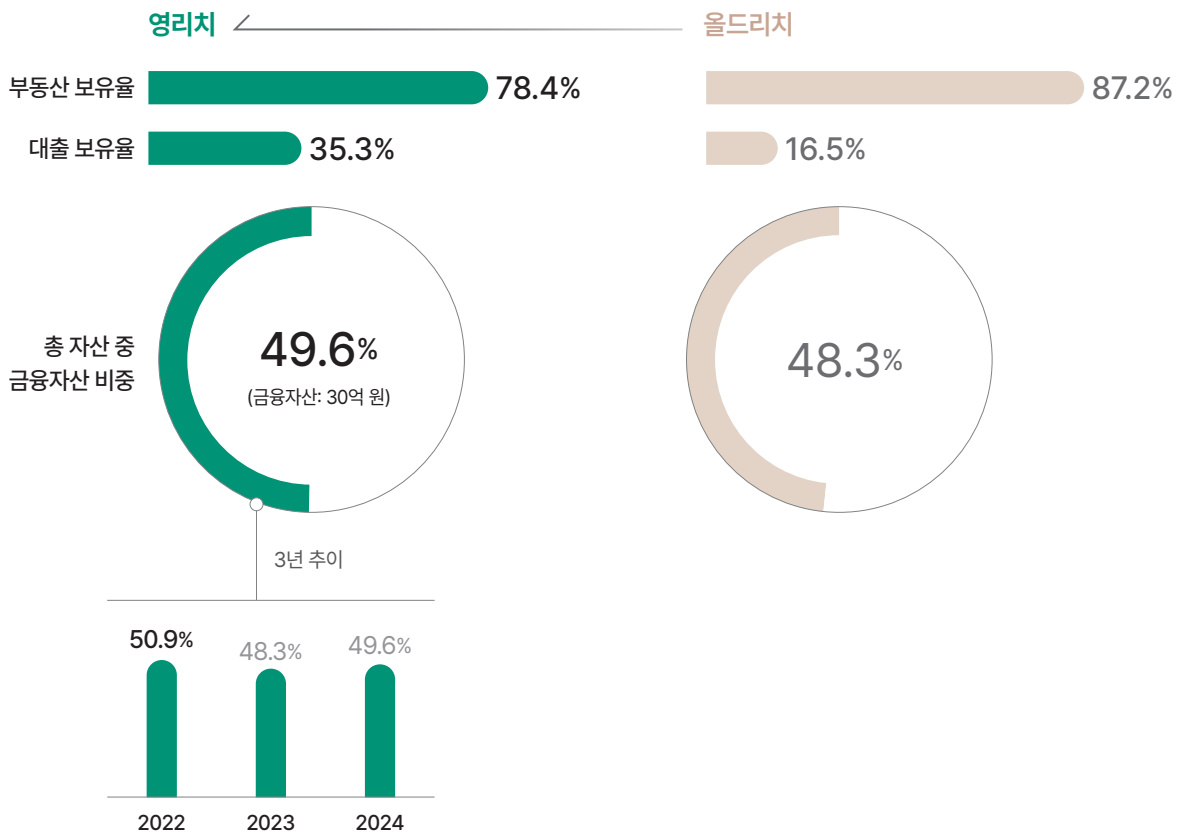
영리치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50%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으로 자산 증식

최근 3년간 영리치의 재정상황을 보면 영리치의 자산은 평균 60억 원대를 유지했고, 금융자산은 그의 절반인 30억 원대에서 움직였다. 영리치 10명 중 8명은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올드리치(10명 중 9명)보다 낮은 편이었고, 반대로 금융자산은 총 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올드리치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을 확보했다. 대출을 받은 비율은 35%를 넘어 올드리치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는 축적된 자산은 적지만 매월 확보되는 소득이 많고 향후 자산을 축적할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는 특징 또한 당연히 다를 것으로 짐작됐다. 하지만 과거(이전 세대)에 비해 영리치는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운용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고, 금융자산의 운용 방법도 더 적극적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에 진심인 영리치,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 비중 지속 증가

영리치의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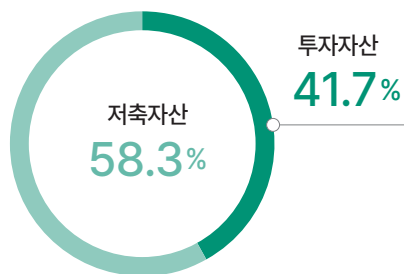
35 → 42%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고, 운용도 과감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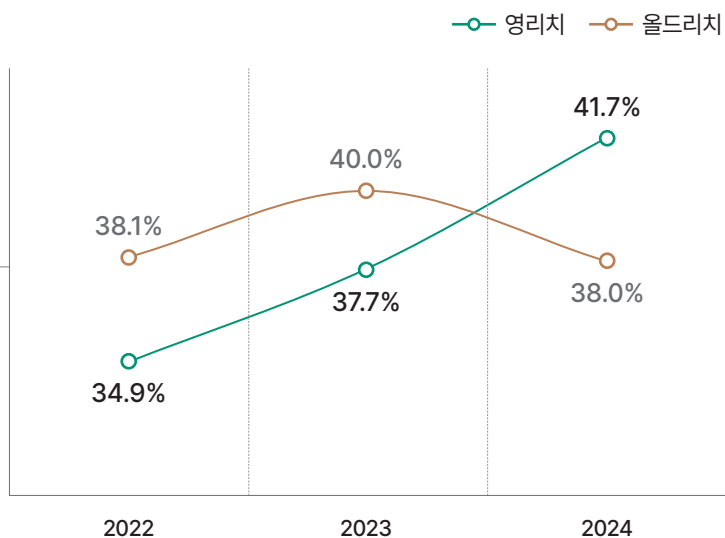
올드리치는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을 40% 내외로 할애하며 영리치보다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해당 추이에 반전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영리치의 투자자산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4년에 40%를 넘기며 올드리치(38%)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자산을 할애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올드리치가 금융자산의 38%~40% 사이에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반면, 영리치는 35%~42%의 변동폭을 보여, 매해 저축 자산과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올드리치보다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2024년 영리치의 금융자산 중
저축/투자자산 비중



투자자산 비중 추이



영리치, 투자는 남이 아닌 나를 믿는다

영리치는 투자 분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뒤 투자를 시작한다는 비율(45%)이 올드리치(39%)보다 높고,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률을 자주 확인하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비율(30%) 또한 올드리치(25%)보다 높았다. 특히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비율(21%)은 올드리치(5%)보다 4배나 높은 정도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투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투자 시 올드리치는 외부 조언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나 영리치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70%)이 올드리치(67%)보다 더 높았다. 외부 정보원을 이용할 때도 영리치는 올드리치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영리치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사 PB(50%)였으나 올드리치가 의지하는 수준(71%)의 0.7배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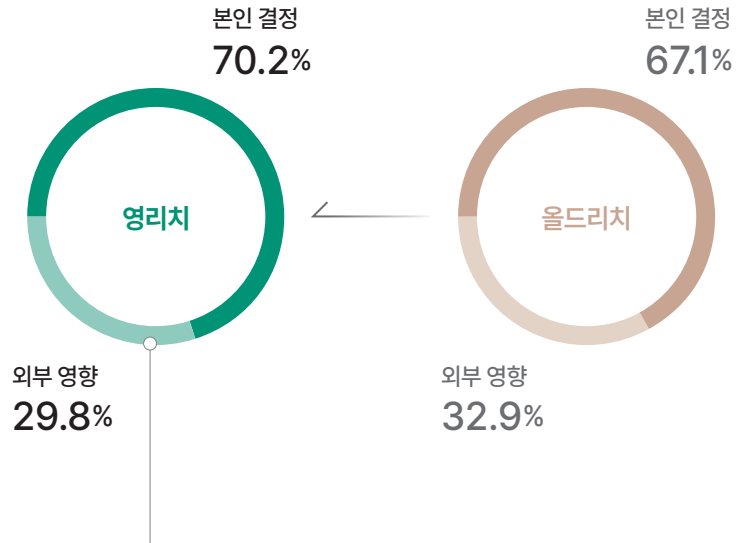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모임(47%)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투자 유료서비스에 가입(7%)해 차별적 정보를 얻는 활동은 올드리치보다 3~4배 월등히 높았다. 즉, 영리치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 외 정보원과도 적극 소통하고, 정보 획득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며 결국 본인의 투자 결정에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투자 관련 태도 (그렇다+매우그렇다)

	영리치	올드리치
관심상품/분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투자를 시작한다	44.9%	39.2%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률을 자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한다	29.9%	24.8%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21.0%	4.9%



투자 결정의 주체 (내외부 영향력)



영리치 투자의 외부 정보원

- ✓ 금융사 직원(49.6%)
- ✓ 금융 관련 커뮤니티/모임(47.3%)
- ✓ 개인적 인맥(41.9%)
- ✓ 투자 관련 유료서비스(7.0%)



30대 여, 전문직

"증권사 PB를 신뢰했는데, 제가 직접 관리종 해볼까 싶어 공부하다보니 PB의 조언이 오히려 느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직접 찾아보고 관리하고 있어요."



40대 남, 사업

"궁금한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봐요. 평소 시간나면 삼프로TV, 슈카월드, 소수몽키처럼 유명한 채널도 자주 보고 있어요."



40대 남, 사업

"투자관련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모셔 강의도 듣고 저희끼리 공부한 것을 토론도 하고요. 투자의 확신을 얻을수도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돼요."

올드리치 대비
영리치의 가상자산 보유율

2.9배 ↑

3. 영리치의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 가상자산, 실물자산 투자는 뜨고!

영리치가 보유한 금융상품 중 이전 세대인 올드리치에 비해 단연 돋보이는 자산 종류는 '주식'과 '가상자산'이었다. 주식 보유율은 가장 대중적인 금융상품인 예금(87%)보다 낮지만 영리치 10명 중 8명이 보유(78%)했고 이는 올드리치보다 1.2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영리치의 주식 보유율은 71%에서 78%까지 꾸준히 증가해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주식의 영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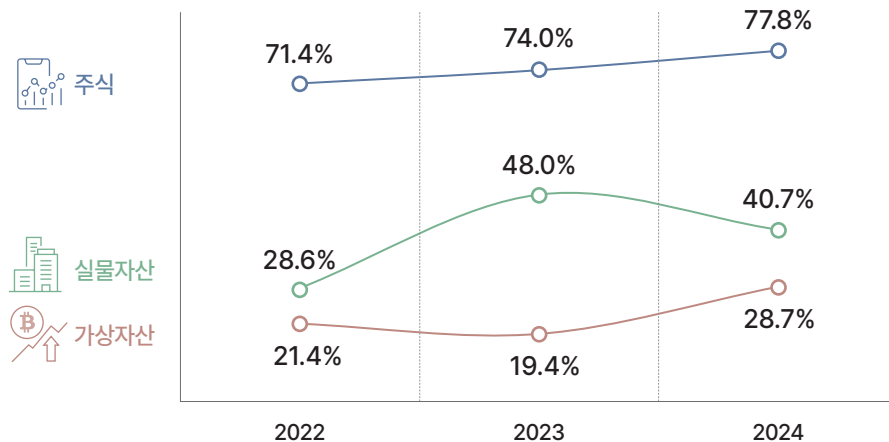
가상자산 보유율은 금융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9%이지만 올드리치보다 약 3배 높을만큼 영리치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영리치의 비율은 2022년~2023년 20% 내외였으나 2024년 29%로 증가하며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의 관심이 높은 투자 영역은 금,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이었다. 실물자산의 보유율은 41%로 올드리치(38%)보다 1.1배 높았다. 2022년 실물자산을 보유한 영리치의 비율은 29%였으나 투자자산으로서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2023년에 48%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40%대의 높은 관심이 유지됐다.

영리치의 금융자산 중 저축/투자자산 보유자 비중

		영리치	올드리치
영리치/ 올드리치 보유 유사	예금	86.8%	95.0%
	보험·연금	71.3%	78.2%
	현금 및 입출금통장	70.1%	75.0%
	상장주식펀드(ETF)	33.5%	38.9%
영리치 보유 상위	주식(ETF 제외)	77.8%	66.4%
	가상자산(코인)	28.7%	10.0%
	실물자산(금, 예술품 등)	40.7%	37.7%
올드리치 보유 상위	펀드·신탁	44.3%	58.6%
	채권	30.5%	45.7%
	회원권(골프장, 호텔 등)	16.8%	23.3%

영리치의 주식, 가상자산, 실물자산 보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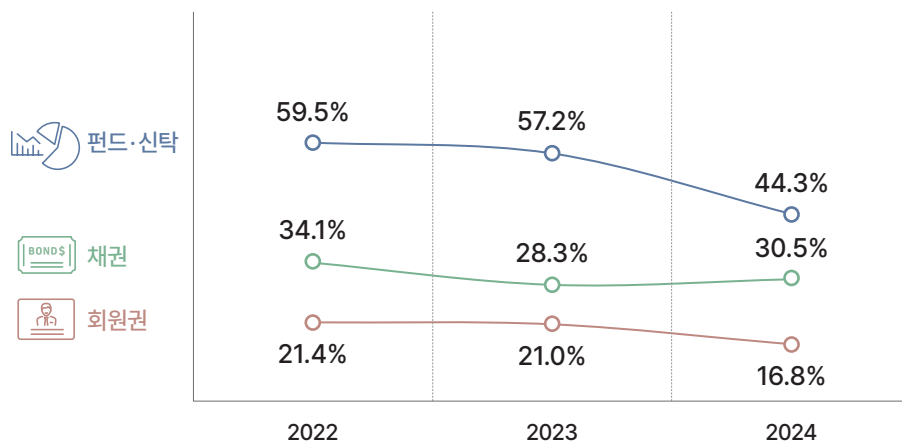
올드리치 대비 영리치의
펀드 보유율

0.8 배

펀드, 채권, 회원권 투자는 지고!

반대로, '펀드', '채권', '회원권'은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 보유율이 20% 이상 낮아 젊은 부자들의 투자 방법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올드리치에 비해 보유율이 낮은 것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보유율 또한 지속 하락한 상품은 '펀드(60% → 44%)'와 '회원권(21% → 17%)'으로 영리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시 후순위 영역으로 해석됐다. 채권은 매해 가입률의 등락을 보임으로써 금융상황에 따라 선택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반적으로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의 관심이 낮은 상품이었다.

영리치의 펀드·신탁, 채권, 회원권 보유율 추이



2024년 (+)투자 수익을 낸 영리치

78%

2024년 영리치의 투자 수익률은 맑음, 주식과 가상자산, 실물자산 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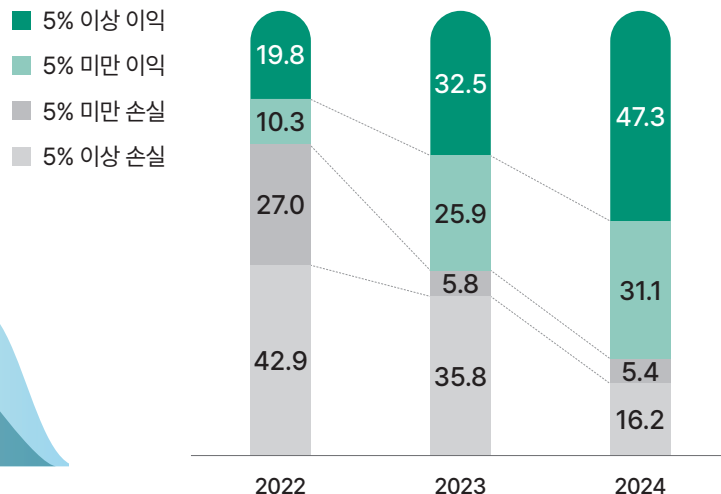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영리치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특히 2024년이 긍정적이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가상자산의 비중을 확대한 영리치의 2024년 수익률은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이었다. 손해를 봤다는 응답은 22%인 반면, 유지~수익을 냈다는 응답은 78%에 달했다. 영리치 중 5% 이상 수익을 낸 비율만 보더라도 47%에 달해 2022년(20%) 비해 2.4배나 개선된 모습이었고, 올드리치(74%)와 비교해서도 수익을 낸 영리치가 더 많았던 한 해였다.

20% 이상 큰 수익을 낸 영리치도 늘었지만 5% 미만 수준의 수익을 확보한 비율도 최근 3년간 크게 늘어(10% → 26% → 31%) 잃지 않은 투자를 한 영리치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영리치의 금융자산 증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 상품은 가장 보유율이 높고 손실의 위험이 없는 '예금'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주식', '펀드', '실물자산', '가상자산' 순으로 높게 응답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금융자산 증식에 미친 기여율 변화를 보면 예금의 영향력은 감소(47% → 31%)했고, 주식의 영향력은 2022년 14%에서 2024년 25%로 크게 증가했다. 실물자산의 영향도 2022년 2%에서 2024년 9%로 비중은 작지만 증가세는 도드라졌다. 가상자산 또한 2022년 1%에 불과했던 영향력이 2024년 8%까지 늘어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영리치의 연간 금융자산 수익률 변화(%)



4. 영리치의 주식투자

미성년~취업 전 주식을 시작한
영리치 비율

25%

주식 네이티브, 영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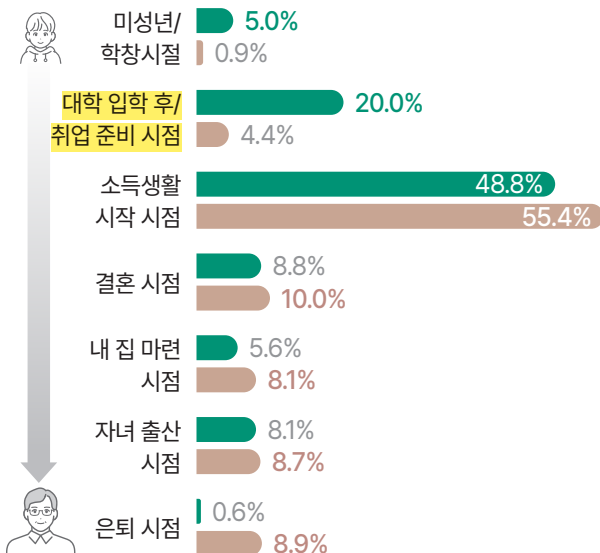
앞서 영리치에게 주식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했다. 물론 영리치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저축자산과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조정할 것이고, 주식에 대한 관심 또한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경향은 올드리치에 비해 영리치의 투자방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영리치가 주식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올드리치보다 훨씬 빨랐다. 미성년 시절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리치가 5%로 올드리치(1%)보다 5배 높았다. 대학 입학~취업 전 주식을 시작한 비율도 영리치가 20%로 올드리치(4%)보다 5배 높았다. 즉, 영리치 4명 중 1명은 소득활동 전에 주식을 시작한 셈이고, 영리치의 나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40대의 19%, 30대의 46%가 취업 전 주식을 했다고 응답해 나이가 젊을수록 주식을 시작한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식을 시작한 계기를 살펴보면, 영리치는 주식을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유동적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을 모은 후(투자금 형성 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선택하는 필수 투자상품으로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올드리치가 '투자 경기가 호황'이어서, '가족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한 것과 비교해 영리치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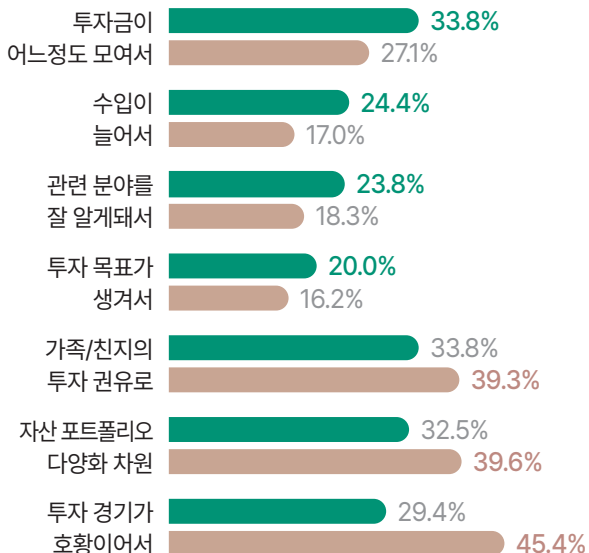
주식투자 시작 시점

■ 영리치 ■ 올드리치



주식투자 시작 계기

■ 영리치 ■ 올드리치



영리치의 국내외 주식 보유 비중

70:30%

국내주식

해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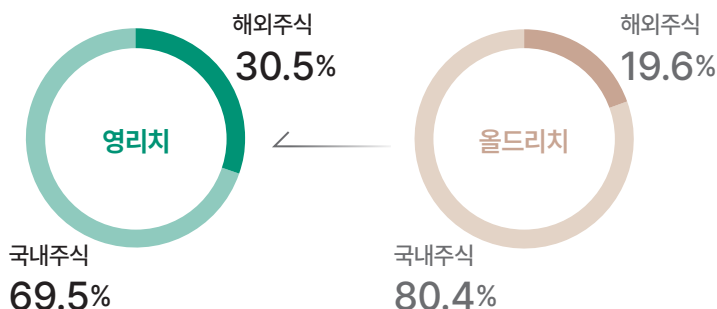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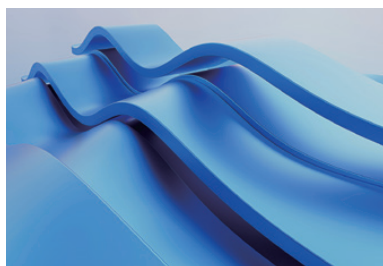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택한 영리치

영리치는 올드리치에 비해 해외주식을 더 선호했다. 2023년 주식을 보유한 영리치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국내주식 vs. 해외주식은 80:20정도였고, 이는 올드리치(85:15)보다 해외주식에 할애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영리치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더 증가해 국내외 주식 투자 비중은 70:30으로 조정됐다. 올드리치 또한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 80:20이 되었으나 여전히 영리치보다 해외주식 보유 비중은 더 낮았다.

영리치는 미국 달러(89%)를 가장 많이 보유해 주로 미국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올드리치에 비해 일본 엔화(45%), 유로화(16%), 영국 파운드(7%), 중국, 캐나다, 홍콩(각 5%)달러 등 더 다양한 외화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글로벌 투자 영역(국가) 또한 확장된 것으로 해석됐다.

국내외 주식 보유 비중



40대 남, 사업

"저는 아예 국장은 안해요. 유학때부터 주식투자를 조금씩 했었고, 그 이후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미국주식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40대 여, 전문직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행지는 내가 관심을 갖는 브랜드를 가진 나라예요. 여행도 하고 그 나라에서 그 종목이 더 발전할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 있어요. 반대로 여행을 하다가 마음에 든 브랜드가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 고루 투자해요. 요즘은 앱을 통해 거래가 편해져 해외주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 영리치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가상자산 성장가능성 인식

31:19%
영리치 올드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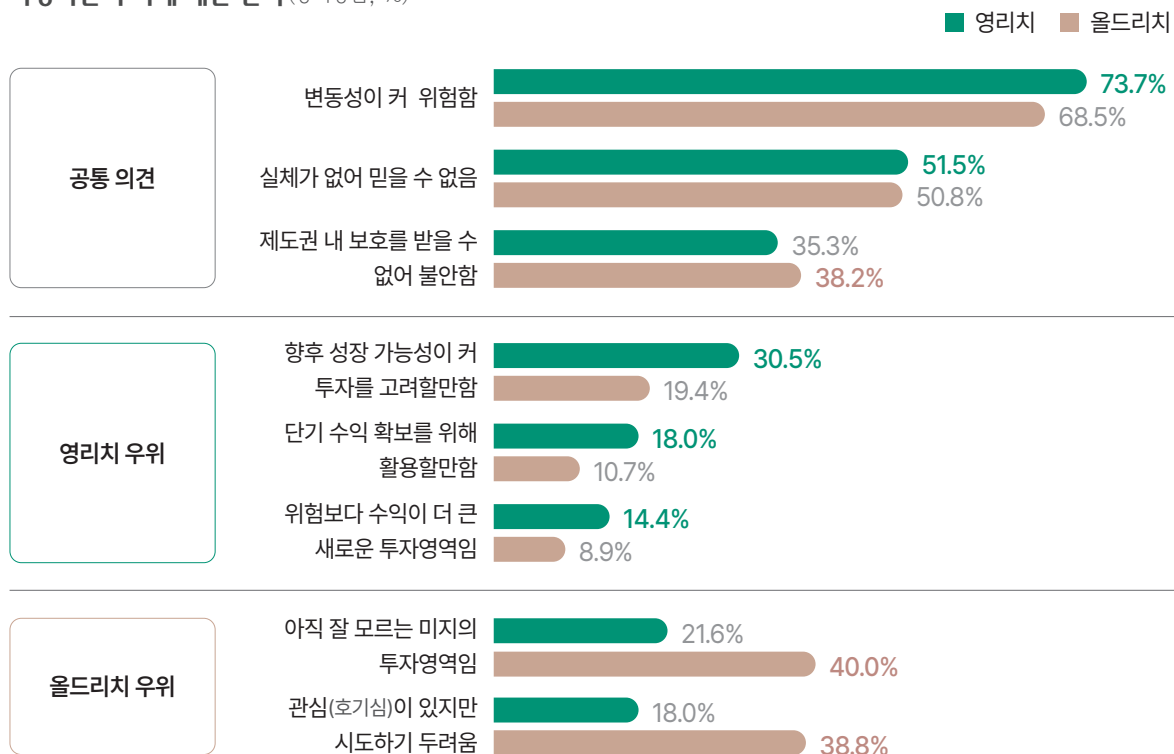
영리치에게 가상자산(코인)은 위험하지만 도전해볼만한 새로운 투자영역

올드리치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영리치 또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인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영리치, 올드리치 모두 10명 중 7명 정도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도박처럼 위험한 투자영역'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영리치는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커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할만한 투자 영역'으로 평가한 인식이 31%로 올드리치(19%)보다 1.6배 높았다. '단기 수익이 기대되는 관심있는 투자 영역(18%)', '위험보다 수익의 장점이 더 큰 새로운 투자 영역(14%)'이라는 인식도 올드리치보다 1.6배 더 높아 가상자산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올드리치는 가상자산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투자 영역(40%)', '관심이 있지만 시도하기 두려운 투자영역(39%)'이라는 인식이 영리치보다 2배 내외 더 높았다. 위험한 투자 영역에 대해 영리치는 시도해볼 만하고, 올드리치는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투자 방향과 그에 따른 수익률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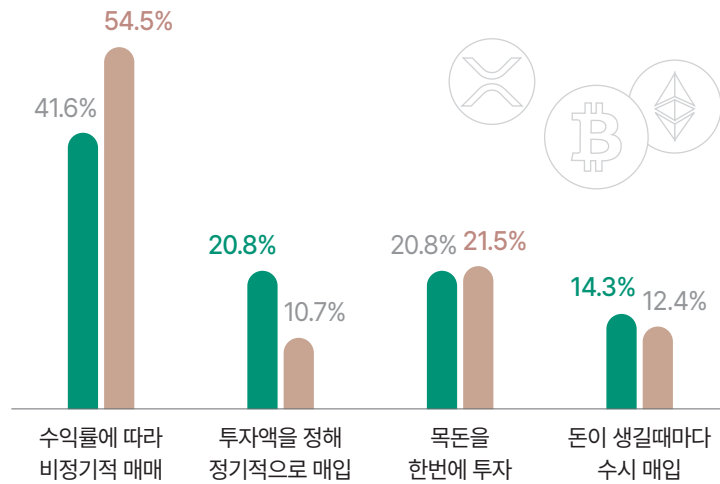
영리치는 가상자산(코인) 투자 시 적립식+분산투자

가상자산(코인) 투자 시 영리치는 수익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매매** (42%)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액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매입(21%)하는 비율도 올드리치보다 2배 많은 편이었다.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올드리치의 1/3은 한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고 세 종류 이상을 보유한 비율은 21%에 그쳤지만 **영리치는 그보다 두 배 많은 42%가 세 종류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여러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고, 정기적 투자를 지향하는 영리치는 기대 대비 투자수익에 대해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올드리치는 36%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영리치보다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만족하는 비율이 저조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 운용 방법

■ 영리치 ■ 올드리치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의 기대대비 만족률 (만족+매우만족)



5. 향후 1년 영리치의 투자 계획

2024년 → 2025년 절세투자 계획

9 → 17%

2024년 2025년

영리치의 2025년 투자 관심은

수익 추구에서 절세+글로벌 투자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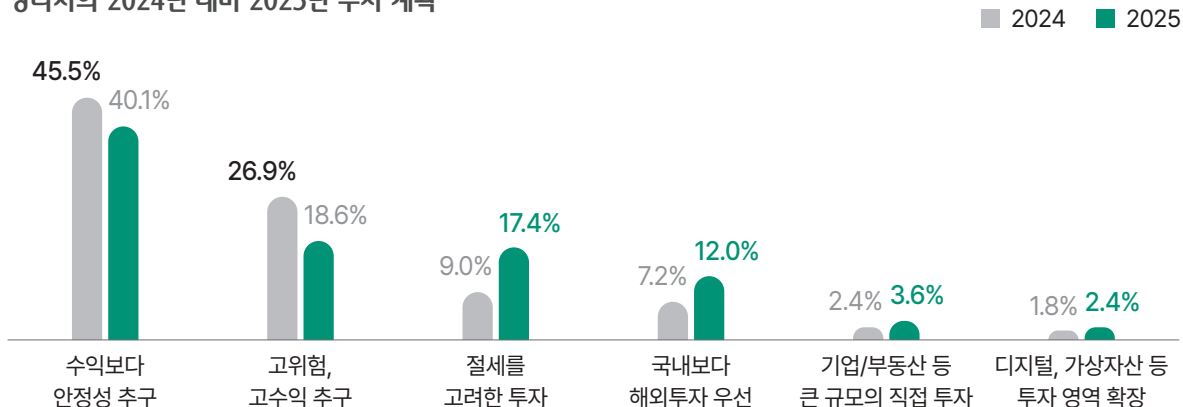
2024년 투자시 영리치 10명 중 4~5명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3명은 고 위험 고수익을 추구했다. 안정성에 무게를 둔 투자가 주였지만 올드리치와 비교해 영리치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2025년 영리치의 투자 계획을 물었을 때 안정성 추구가 가장 높고, 고 위험 고수익 추구가 다음을 차지해 2024년과 비교해 순위의 변화는 없었지만 해당 응답의 비율은 모두 낮아졌다. 대신 '절세를 고려한 투자' 계획은 2024년 9%에서 2025년 17%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가 2024년 12월에 결정됐으므로 그 전까지 유예 기간 만료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이고,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거래 수수료 및 배당·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2027년으로 유예, 2024년 12월 결정) 등이 절세 필요의 인식을 높였을 것으로 이해됐다. 또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리치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절세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였다.

'국내보다 해외를 우선 고려'한 투자 계획 또한 7%에서 12%로 1.7배 증가했다. 실제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보유 비중이 70:30이었던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60:40으로 추가 조정할 의향을 보여 해외주식을 우선하는 영리치의 투자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소수 응답이지만 '디지털,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1.8% → 2.4%)를 계획한다는 응답도 증가해 투자의 관심 변화를 확인했다. 향후 1년 내 가상자산 투자계획을 물었을 때 영리치의 1/3이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이는 올드리치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었다.

영리치의 2024년 대비 2025년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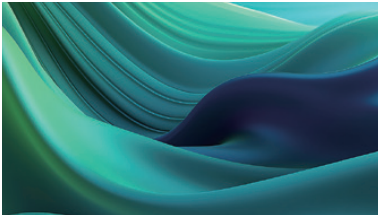
6. 영리치의 소비, 부에 대한 인식

명품 소비 추구

21:10%

영리치

올드리치



영리치는 올드리치보다 명품 선호, 녹색소비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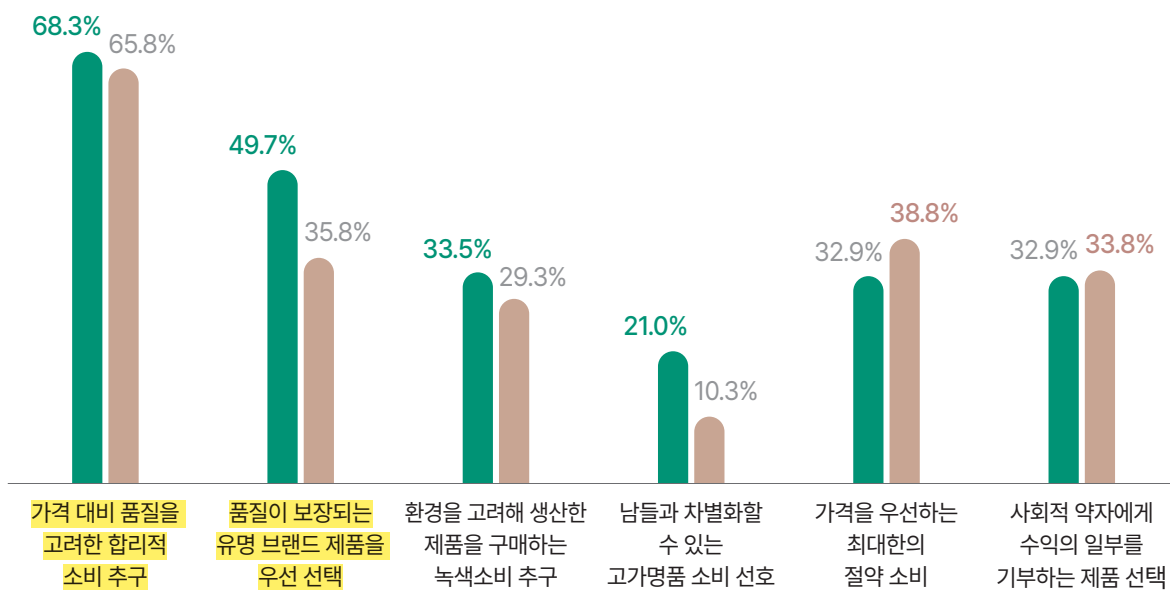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절약'은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으며 '인생은 한번뿐, 아낌 없이 쓰자'던 '올로(You Only Live Once)족' 대신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며 아껴쓰는 '요노(You Only Need One)족'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격을 우선하는 절약 소비는 영리치가 아닌 올드리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영리치는 가격 대비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면서도 품질이 보장되는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명품을 선호하는 비중이 올드리치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인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작정 아끼는 소비를 추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이라면 가격 이상의 가치를 확신한다고 해석됐다.

소비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영리치와 올드리치의 관심 분야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올드리치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소비에 가치를 두는 반면, 영리치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영리치는 미래를 대비한 환경 보호의 실천이 더 절실한 세대일 수 있었다.

올드리치 대비 영리치가 추구하는 소비의 가치 (매우동의+동의)

■ 영리치 ■ 올드리치



영리치

올드리치

부자의 요건으로 사회적 위상 고려

56%

영리치는 부자의 기준으로 사회적 능력

(학벌, 직업, 인맥 등)을 중시

영리치나 올드리치 모두 부자라고 여겨지는 자산 기준은 약 120억 원이라고 응답해 인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산 외 추가되는 부자의 요건은 올드리치와 영리치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영리치는 올드리치보다 학력, 직업, 유학 경험, 가문 등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자라면 갖추어야 할 내적 성품(성향)에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성숙한 인격보다 '뚜렷한 자기 신념', '목표에 따른 추진/실행력' 등 능력과 연관된 특징을 올드리치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상대적으로 올드리치는 '문화적 소양'과 '내적성품/인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영리치가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에 더 예민할 수 있지만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에 비해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기호'는 올드리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확인돼 영리치는 부를 대변하는 취미나 문화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호 문제라고 여기는 듯 했다.

앞서 살펴본 영리치의 금융투자/소비 특징과 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향후 부자들은 금융기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금융 포트폴리오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를 표현하는 방식도 본인의 가치에 따라 명품을 활용해서라도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나타낼 것이며, 돈과 능력을 동시에 추구해 부자의 위상을 더 까다롭게 지켜갈 것이라고 짐작된다.

자산 외 부자의 요건 (복수 응답)

	영리치	올드리치
사회적 위상/인맥	55.7%	46.2%
가문 (집안의 사회적 평판)	15.0%	13.7%



직업/직위	44.3%	38.8%
학력	28.7%	20.9%
해외거주/유학 경험	12.6%	8.5%
영향력 있는 인맥 보유	25.7%	15.6%

	영리치	올드리치
성품/인격	89.2%	92.9%
문화적 소양	41.3%	54.3%



뚜렷한 자기 신념/가치관	59.3%	56.3%
계획(목표) 추진력/실행력	37.7%	26.4%
자기관리(외모, 능력 등)	37.1%	30.0%
성숙한 인격/품성	74.3%	78.7%
사회적 책임 의식	46.7%	57.2%

CRYPTOCURRENCY INVESTMENT, IS IT GAMBLING OR A CHALLENGE?

가상자산(코인) 투자, 도박인가? 도전인가?



가상자산 투자가 달라졌다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시각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디지털 금융 기술의 혁신을 인정하고 금융 환경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수익률 파고의 불안정성과 미흡한 규제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팽하다.

부자는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암호화폐 등판 후 변화된 투자 특징을 확인한다.

가상자산(코인), 새로운 투자의 장



워렌버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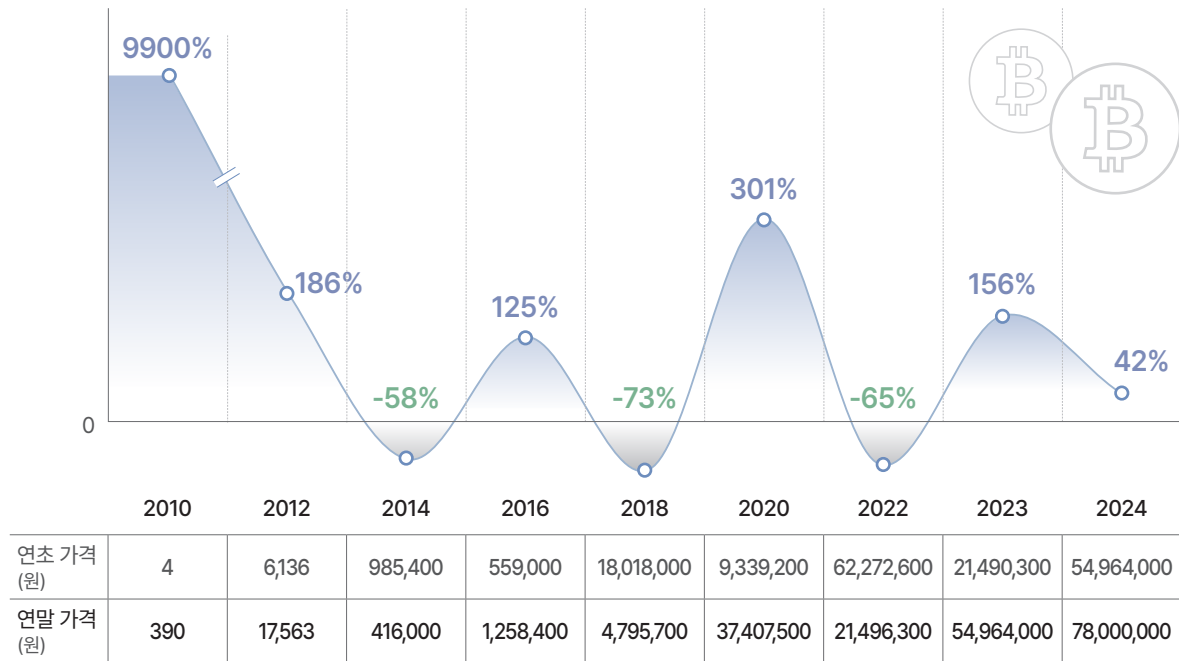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인 워렌버핏(Warren Buffett)과 부회장 찰리멍거(Charles Thomas Munger, ~2023)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수하며 '가상자산은 끔찍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뒤이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브라질 최대 핀테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상자산 관련주의 추가 매입을 고려할지 모른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의 신'이 아무리 가상자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고수하더라도 시장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적 상황을 꼬집고 있었다.

또한,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채권, 금, 은, 비트코인의 대규모 폭락을 경고했지만 비트코인 폭락 후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투자 지식을 쌓고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연내 2~3배 가격 변화(비트코인 발굴 초기 연내 99배 가격 변화, 2012년 +1.9배, 2014년 -0.6배, 2020년 3.0배)가 우스울 만큼 어떤 금융투자보다 변동성이 크고 여전히 규제가 미흡하지만 금융업계의 선도자들은 해당 영역에 관심을 확대하며 투자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
(사진: 기요사키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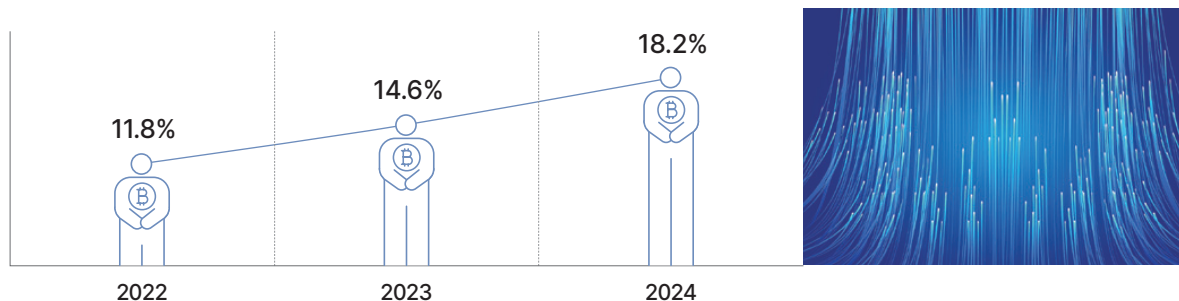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 변화(2010년~2024년)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중부유층+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코인) 보유율은 2022년 12%에서 2024년 18%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15%씩 증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수익률이 1년 사이 1.6배 급등하던 2023년, 가상자산(코인) 보유율은 이전해 보다 크게 늘었고, (+)수익률을 이어 나간 2024년에도 가상자산(코인) 보유율은 계속 높아졌다.

2024년 기준,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경험자(14%)까지 더하면 응답자의 1/3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형성된 우량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코인) 투자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금융소비자의 최근 3년간 가상자산(코인) 보유율 변화



WHO?

1. 가상자산(코인)은 누가 투자하는가?

스스로 투자에 자신있는, 40대 이하, 대중부유층, 남성

가상자산(코인) 미보유자 대비 보유자의 프로필 차이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코인) 보유자는 남성 또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자)보다 1억 원 이상의 대중부유층의 비율이 더 높았다. 부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율이 낮은 데는 코인 거래가 드문 고연령층이 부자 범주에 더 많이 속한 영향이 있었다. 50대 미만으로만 한정하면 대중부유층(30%)과 부자(29%)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율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관련한 태도를 보면 가상자산(코인) 보유자는 '평소 투자를 위해 정치·경제·금융·외교 등에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한다'에 59%가 동의했다. 이는 가상자산(코인) 미보유자(47%) 대비 1.3배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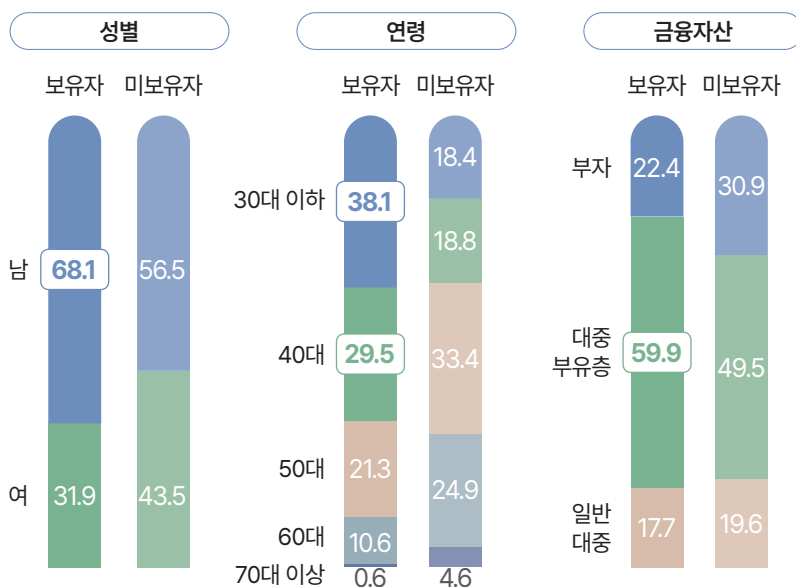
‘투자 역량의 자신감’ 또한 26%(보유자) vs. 19%(미보유자)로 1.4배 높았고,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활용 인식’도 22% vs. 9%로 가상자산(코인) 보유자가 2.4배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상자산(코인) 보유자의 금융자산은 저축성 자산과 투자성 자산이 반반으로 구성돼 미보유자보다 투자성 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미보유자는 저축성 자산 비중(67%)이 투자성 자산(33%)의 두 배를 차지해 보유자와 다른 금융자산 구성을 보였다.

가상자산(코인) 주 거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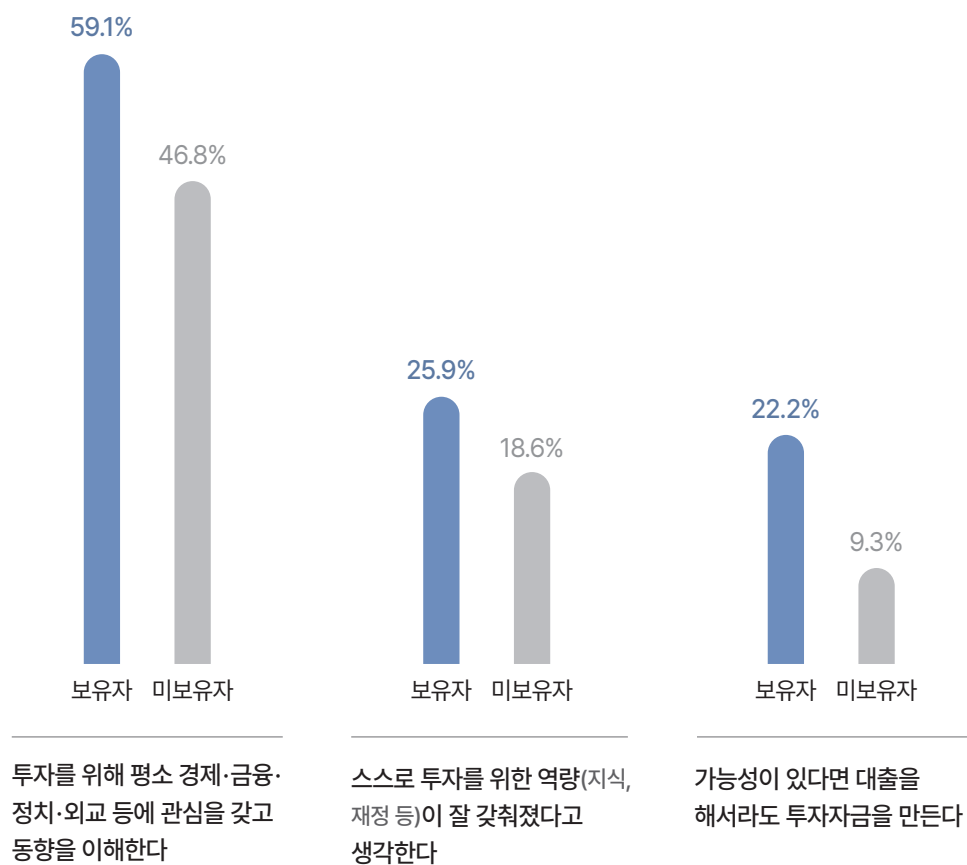
40대 이하

가상자산(코인) 보유/미보유자의 프로파일 차이 (%)



*이후 가상자산(코인) 보유자 전체는
대중부유층을 포함한 부자의 의견

가상자산(코인) 보유/미보유자의 투자 관련 인식 차이



HOW?

2. 가상자산(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가상자산 보유자의 1/3은 4종 이상 코인으로 분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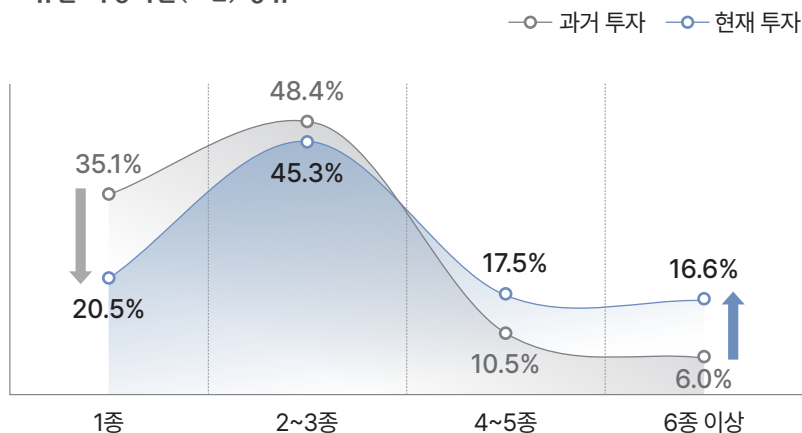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했던(지금은 미보유) 투자자의 1/3은 가상자산 투자 시 한 종류의 코인에 투자했다. 이들을 포함해 세 종류 이하 코인에 투자한 비율은 84%로 투자자의 대다수가 소수 코인에 투자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코인 수가 더 늘었다. 1종의 코인을 보유한 비율은 35%(과거 투자자)에서 21%(현재 투자자)로 줄고, 4종 이상 보유한 비율은 17%에서 34%로 두 배 늘었다.

가상자산 보유자 중
4종 이상 코인 보유자 비율

34%

보유한 가상자산(코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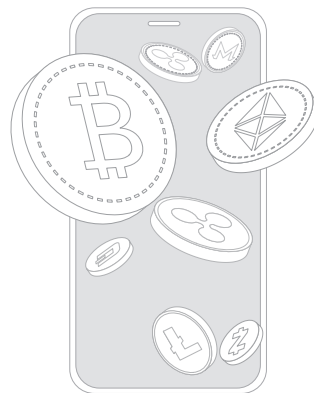


목돈 매매보다 수시 매매로 시점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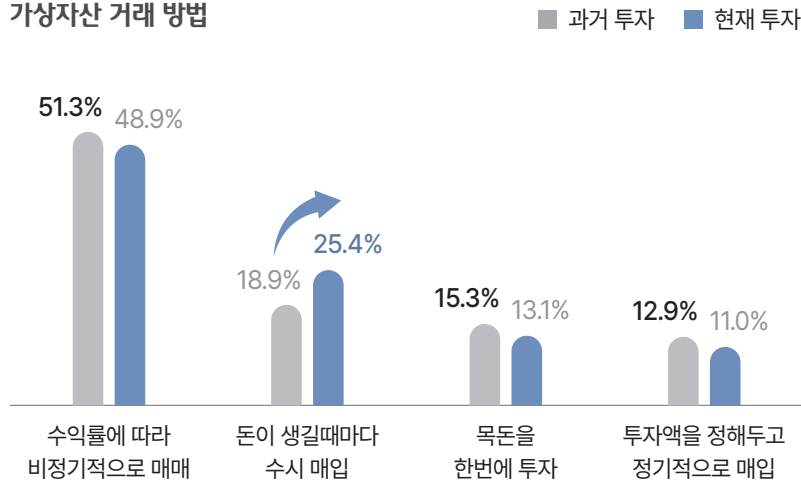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투자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매입'하기 보다 수익률을 고려해 '비정기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과거 투자 방식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과거 '목돈을 한번에 투자'하는 비율이 줄고,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입'하는 비율은 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좀 더 자주, 시점을 분산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행태가 변화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자산은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고, 변동폭이 큰 특징때문인지 4명 중 1명이 주 1회 이상 거래를 빈번하게 한다고 응답해 주식투자(16%)보다 관여(거래 빈도)가 더 높았다.



가상자산 거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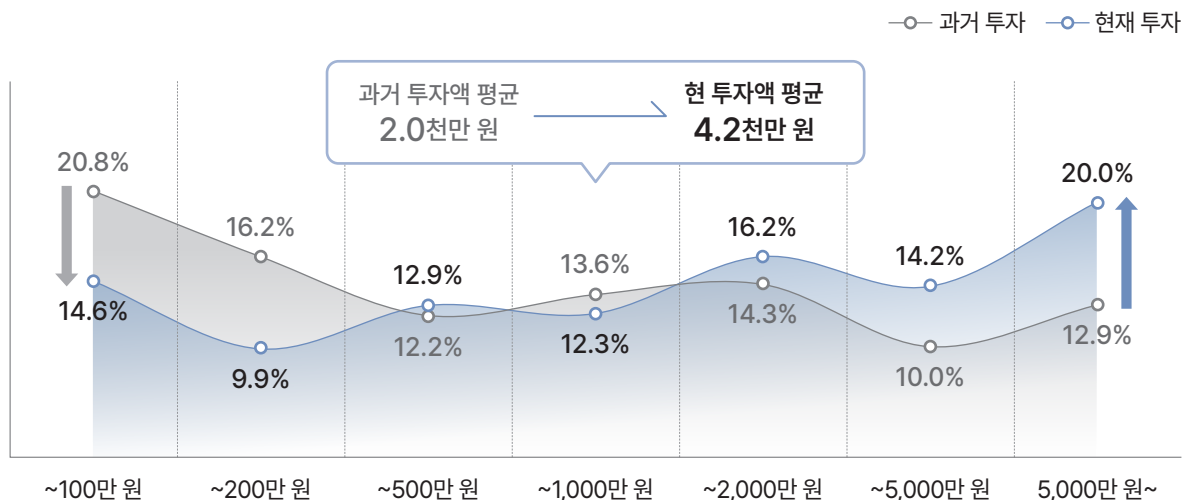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시 부자 4명 중 3명은 1,000만 원 이상 투자

과거 가상자산 투자자 중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를 하는 비율은 63% 였으나 현재는 50%로 감소했고, 평균 투자액도 과거(2천만 원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도가 커진 모습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금융자산 보유 규모로 나눠보면, 대중부유층은 100만 원 미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투자액의 편차가 고루 분산됐다. 2024년,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5%를 훌쩍 넘는 액수였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는 그보다 4~5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소액 투자보다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비율이 74%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부자는 총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의 3% 이하로 대중부유층만큼 크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 가상자산 투자액 분포 변화



HOW MUCH?

3. 가상자산(코인) 투자 성과는 어떠한가?

가상자산(코인) 미보유자는 잃지 않고, 보유자는 수익 높고!

2024년 금융자산 총 수익률을 보면 가상자산(코인) 보유자의 64%가 손실없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69%가 손실없이 수익을 내 가상자산(코인) 보유자보다 안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 이상 수익을 낸 비율은 가상자산(코인) 보유자가 42%로 미보유자(29%)보다 1.5배 더 많았다. 즉, 미보유자는 0~5% 미만의 유지 수준, 잃지 않은 투자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5% 이상 수익 확보에서는 열위였던 것이다. 특히 10% 이상 수익을 확보한 비율은 가상자산(코인) 미보유자(10%)가 보유자(24%)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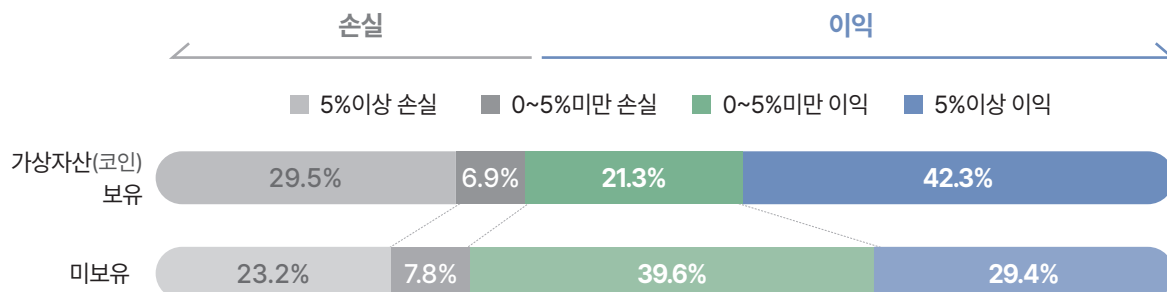
가상자산(코인) 보유자 중 고수익자 비율이 높음과 동시에 크게 잃은 손실자의 비율도 미보유자보다 많았다. 보유자의 약 1/3은 총 금융수익률이 5% 이상 손실이라고 응답해 손실을 본 경우 미보유자보다 더 크게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코인) 운용 시 손익의 범위는 훨씬 큰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2024년 0% 이상
금융수익 확보 비율

64:69%

가상자산(코인) 보유자 미보유자

가상자산(코인) 보유 여부에 따른 2024년 금융투자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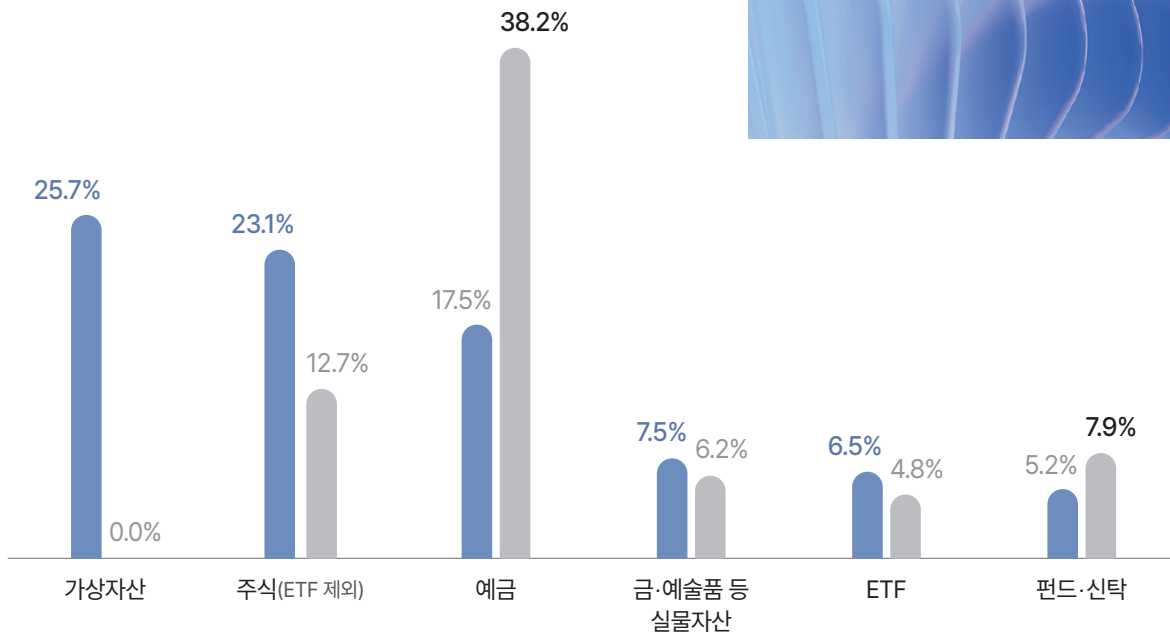
가상자산(코인) 보유자에게 2024년 금융 수익의 1등 공신은 가상자산

2024년 금융자산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유형을 물었을 때 가상자산(코인) 보유자는 '가상자산(26%)'을 1위로 응답해 2024년 가상자산이 수익률 증가에 미친 영향력을 분명히 했다. 뒤를 이어 주식(23%), 예금(18%)순으로 응답돼 가상자산(코인) 투자자에게는 저축형 자산보다 직접투자의 수익 기여가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보유자에서는 1위가 예금(38%)이었고, 주식(13%)이 그 뒤를 이었으나 두 응답률의 격차는 3배 가량 크게 벌어져 예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예금이 자산 증식에 영향을 준 미보유자가 많지 않는, 그러나 수익률이 높지 않은 투자 성과를 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24년 금융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준 자산 유형 Top6

■ 가상자산 보유 ■ 가상자산 미보유 *5% 이상 응답만 표기



40대 여, 주부

“코인하기 전에는 투자에 관심도 없었어요. 버는대로 다 썼고요. 그런데 코인으로 수익이 나니까 쓸만큼 다 써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졌죠.”

가상자산(코인) 투자 시 수익률 20%가 넘을 때 만족도 커져

가상자산(코인) 투자의 수익률은 설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테지만 2024년 말 설문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은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였다. 과거보다 현재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이 1.7배 가량 높아 최근까지 투자를 지속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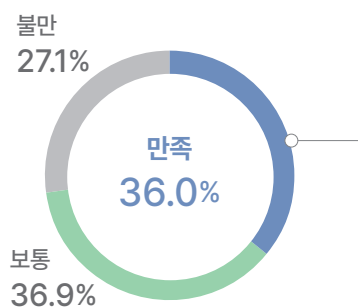
다수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냈지만 기대(목표) 대비 수익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대 대비 수익 만족률도 높아지는 경향이지만 수익률이 20%를 넘으면 100% 초과 수익을 낼 때까지는 그 이상 수익을 거둬도 만족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큰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는 수익률 변화에 대한 우려, 하락에 대한 상실 등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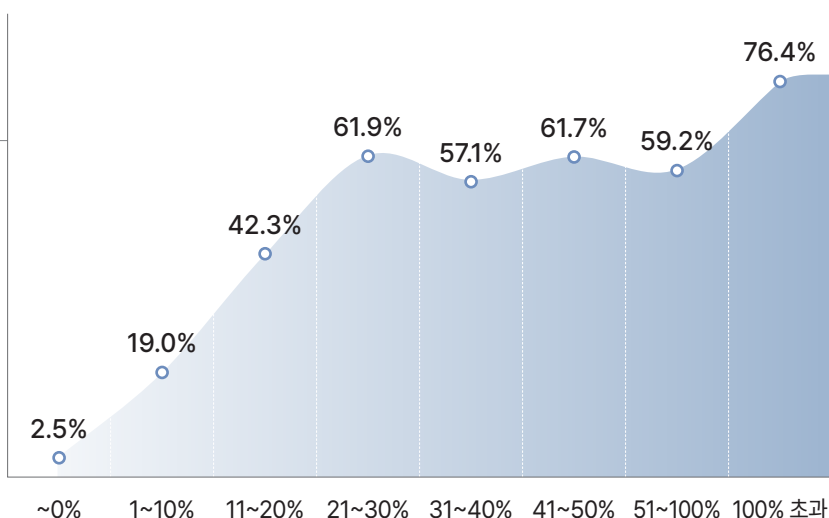
40대 남, 사업

“코인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계엄 때문에 하락하다가 그다음 바로 폭등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믿고 공부하면서 투자해야지, 수익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저는 꾸준히 스터디 모임에서 배우기도 하고, 코인 발행사의 백서도 읽으며 단타 수익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려고 해요.”

가상자산(코인) 투자 만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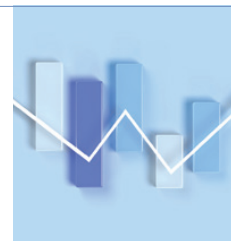


가상자산(코인) 수익률에 따른 투자 만족률



Check point!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난해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내야하는 세금인 금투세가 폐지됐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됐다.



WHAT?

4.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코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모두가 위험성에 동의하지만 그 와중에 부자는 발전 가능성을 고려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을 때, 10명 중 7명은 '위험성'을 꼽았다. 금융자산이 많은 적든, 연령이 높은 낮은 가상자산(코인)의 위험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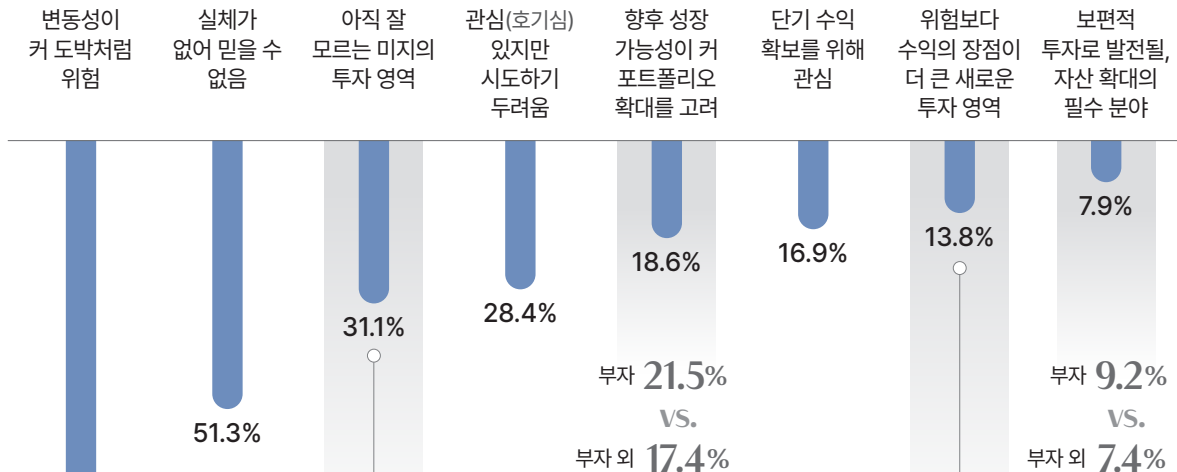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대중이 주로 가상자산(코인)의 위험, 불신, 불분명(모호)함에 집중할 때 부자는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동의했다. 일반대중이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출 때 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하는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령층은 가상자산(코인)을 '잘 모르는', '관심있지만 시도가 어려운' 투자 영역이라 인식하는 반면, 40대 이하의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투자영역으로서 수익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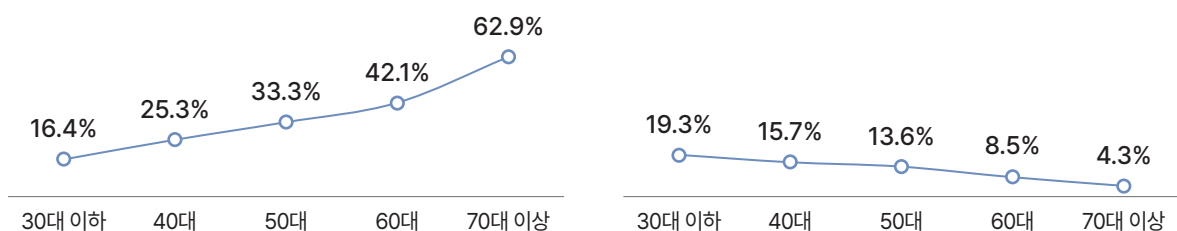
가상자산(코인)
'도박처럼 위험한 투자영역'

7 in 10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연령별 인식 차이



WHY?

5. 왜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하는가? 향후 계획은?

**수익률 최우선! 과거에는 수익 집중+주변 영향에서
현재는 투자 접근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시작한 계기는 '수익률' 영향이 가장 컸고, 투자금액이나 시간 제약없이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접근성'이 그 다음이었다. '주변의 거래 및 추천'이 늘어 심리적 동기가 높아진 것 또한 거래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과거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는 '수익률'에 집중해 거래를 시작한 비율이 높았고, '주변'에서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경향도 보였다. 하지만 현재 투자자는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 접근성'과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 정세',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한 경향이 더 커졌다. 즉, 과거에 비해 자기 확신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져 시장의 성숙이 예상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지속거래
의향(높음+보통) 응답률

9 in 10

가상자산(코인) 투자 경험자의 투자 관심 및 거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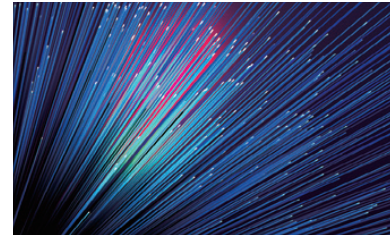
		과거 투자	현재 투자
수익률	수익률이 좋아 보여서	49.0%	59.0% → 42.5%
	언제든 원할 때 거래할 수 있어서	30.3%	20.5% → 36.7%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22.2%	21.8% → 22.5%
투자 접근성	투자할 수 있는 분야(코인) 종류가 많아서	4.0%	1.3% → 5.8%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29.3%	30.8% → 28.3%
	추천때문(투자인플루언서 등)	23.7%	21.8% → 25.0%
주변 영향	공식(제도권) 자산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29.3%	21.8% → 34.2%
	정세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어서	18.2%	12.8% → 21.7%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기대돼서	17.7%	14.1% → 20.0%
성장 가능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5.6%	2.6% → 7.5%

투자자 10명 중 9명이 투자+유지, 미투자자 10명 중 1명이 신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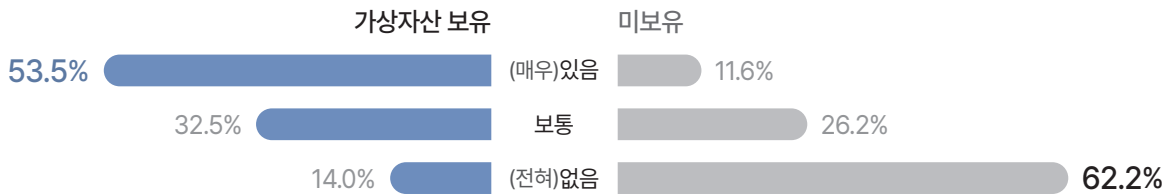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5~6명은 향후 1년간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보였고, 3명은 중도적 입장이었다. 의향이 없다는 부정 응답은 1명 정도였다. 반면, 투자경험이 없는 미보유자가 향후 1년 내 투자를 시작할 의향은 12%로 높지 않았다. 중도 의견(26%)보다 부정 의견(62%)이 확고해 가상자산(코인)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쉽게 시작하기 어려워 보였다.

젊을수록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향은 높아지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서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가상자산(코인) 투자의향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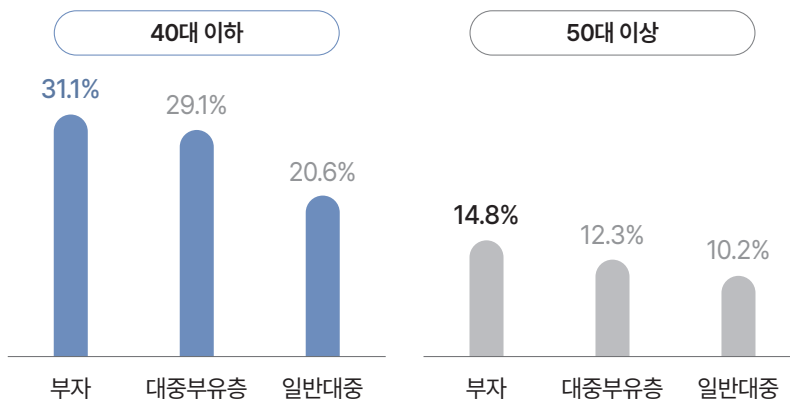
50대 이상은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향이 크게 감소하지만 해당 그룹 내에서도 부자가 가상자산(코인)에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향후 1년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향



연령+금융자산에 따른 향후 1년 가상자산 투자 의향(매우있음+있음)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다수가 인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는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어떤 투자자는 불확실성에 집중하며 다른 선택을 한다. 다만 매우 짧은 시간 내 투자 영역에 가상자산이 편입돼 그 범위가 확장됐고, 젊은층, 특히 영리치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금융 포트폴리오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40대 남, 사업

"가상자산은 국제 금융, 무역 등에서 송금·결제 수단으로 이미 활용되고,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적 이슈와도 민감하게 연결되는데 트럼프가 친가상자산쪽이므로 앞으로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40대 남, 사업

"가상자산은 투자하다가 지금은 안하는데... 할 때는 채굴기를 만들어서 할 정도였는데, 잠도 못자고 삶이 유지가 안되더라고요. 향후 ETF로는 투자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40대 여, 전문직

"가상자산은 각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기에는 불안해서..., 과거에 지인 추천으로 들어갔다가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60대 여, 주부

"우리는 안하고 큰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수익을 내며 자리 잡아가는 것 보니까 젊은이들은 확실히 다르다 싶기도 하고, 하지말라고 한게 미안해 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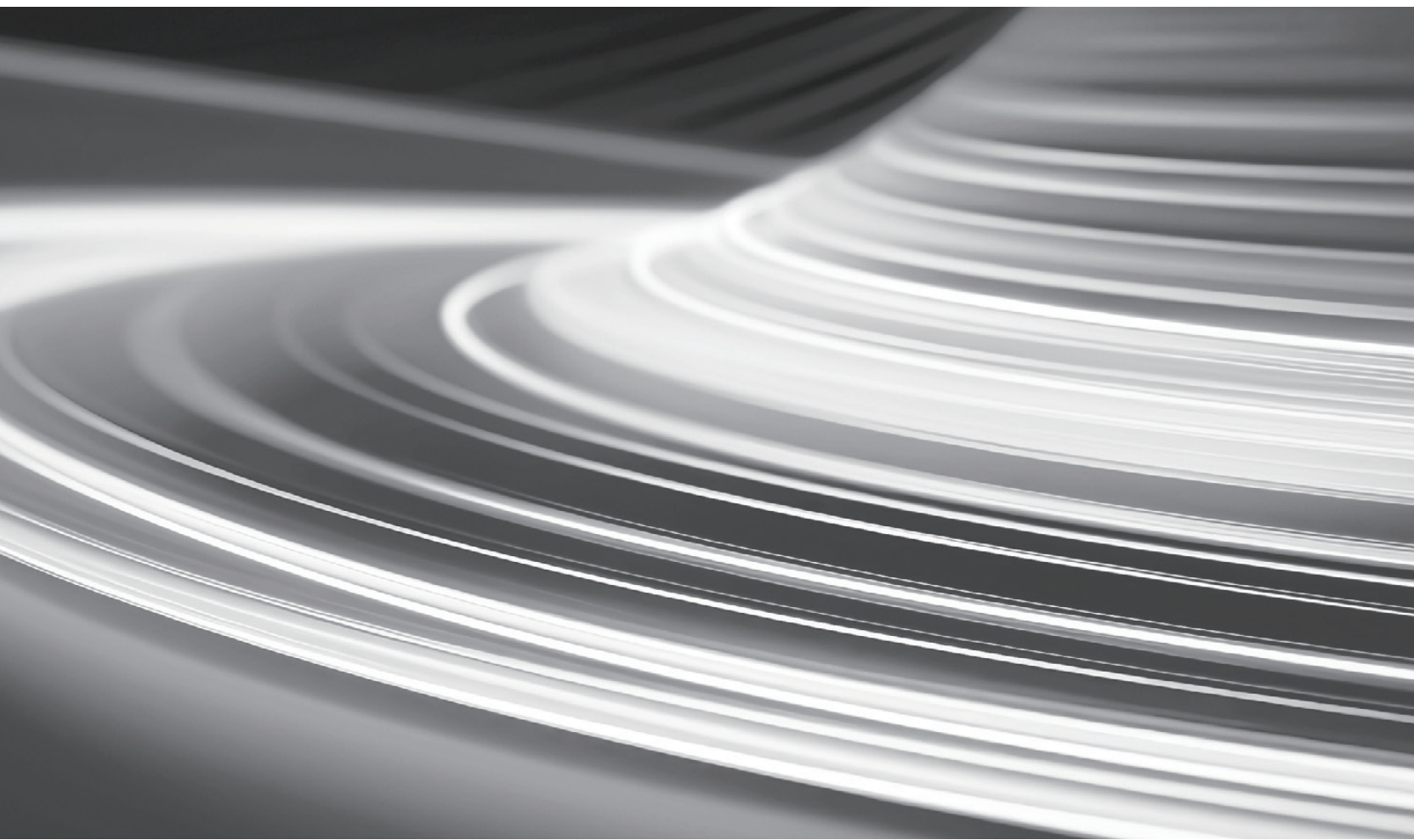


60대 남, 장학재단 운영

"가상자산은 돈이 국경을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 어두운쪽에서 더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난 늙어서 새로 공부할 힘도 없고... 부동산도 국장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상자산에까지 투자할 생각은 없지요."

AI ASSET MANAGEMENT AND INVESTMENT SERVICES

AI 자산운용·투자 서비스



내 자산관리를 AI에게 맡겨도 될까?

숨가쁘게 발전하는 AI 디지털 기술은 부자의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부자가 AI 자산관리를 얼마나 믿고, 활용하는지 그들의 인식과 기대를 확인해 본다.

AI와 금융산업

미국의 Open AI가 챗GPT를 내놓아 큰 화제를 모은지 얼마 지나지않아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내놓은 AI모델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챗GPT와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보도돼 AI 개발의 효율화가 타진됐고, 동시에 정보 보안의 신뢰성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향후 AI 시장의 판도는 지켜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AI의 개발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진화하며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할 것이고 AI 활용에 따른 신뢰성 이슈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AI는 데이터 처리 범위와 속도, 시간이 크게 개선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보를 축적해 스스로 진화하며 창조적 결과를 생성하는 데에도 꽤 고도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상적 대화 형태로 A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도 확보돼 있다. 금융산업에서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된다. AI챗봇을 통해 대화형 상담이 진행되고,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종합적 재정 분석을 한 뒤 개인 성향에 따라 맞춤 포트폴리오가 제안되기도 한다. 개인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수익률을 자동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술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AI가 PB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짜여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하거나 직접 자산운용을 수행한다.



금융산업에서 AI 활용도는 약 19%(2021년 기준)에 이르며, 2026년에는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본격적으로 AI·로봇과 함께하는 '호모 아티피쿠스*(Homo Artificus, 인공적인 인간)' 시대가 본격화되면 영업점, 전화, PC, 모바일 앱으로 이동해온 금융 생활에 또 한번의 높은 파고가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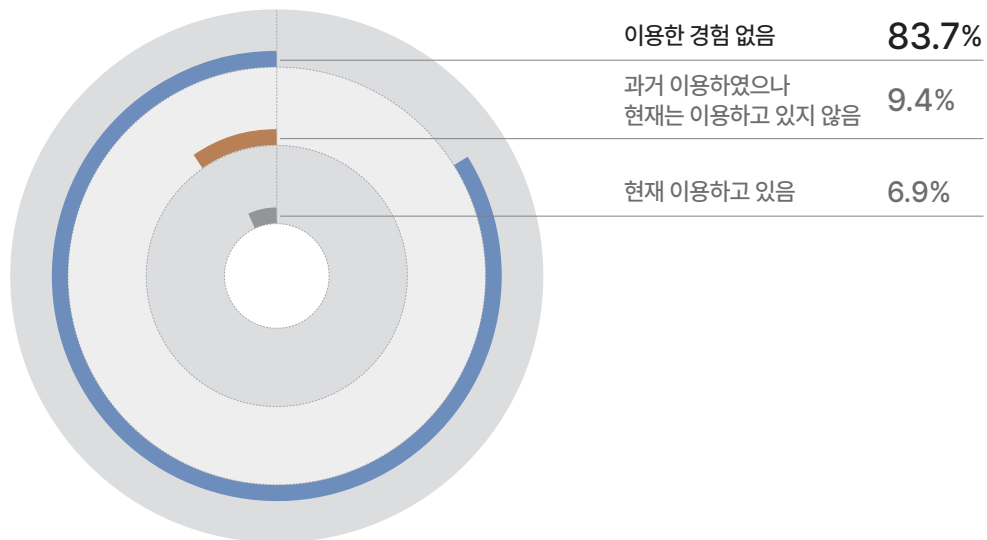
*Homo Artificus: AI, 로봇, 무인시스템 등이 일상화돼 기계와의 상호소통이 일상화되는 인류를 일컫는 말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아이(AI)

시장의 움직임이 이토록 활발한 가운데 부자 대부분이 모바일 금융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은 아직 한 번도 AI 기반의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대 미만의 영리치나 가상자산 투자자 등 적극적 투자 성향을 가진 부자는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본적으로 부자는 자산 증식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산관리에 있어 신뢰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AI가 아직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AI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AI를 활용한 자산운용/ 투자관리 경험



조사 결과상으로도 부자는 아직까지 자산운용/투자 의사결정시 사람(PB)과의 상호작용이 아닌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신뢰가 부족했다. AI가 추천하는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AI 서비스를 경험해본 경우 신뢰도(34%)는 상승하지만 여전히 불신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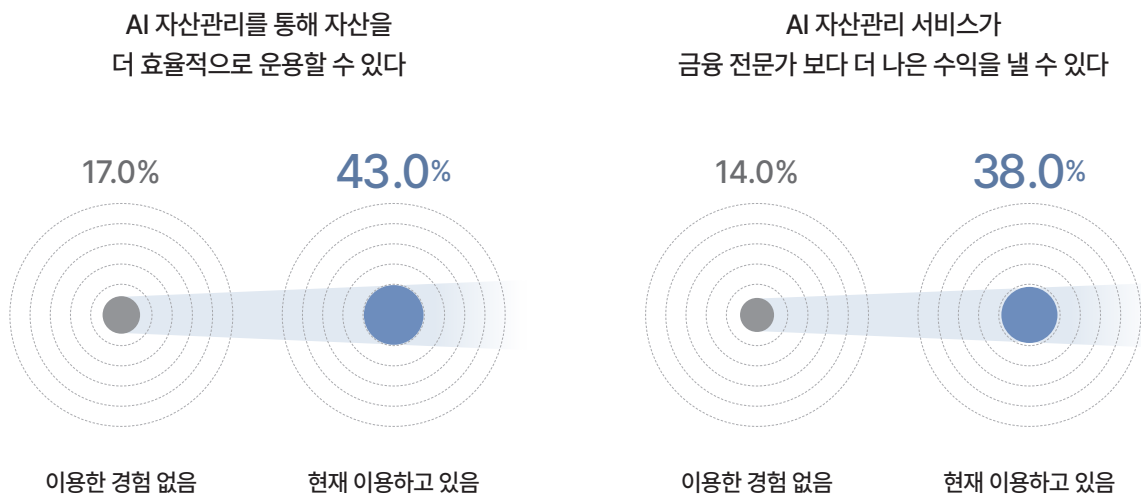
“ AI가 추천, 진행하는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 ”

15%



심리적 허들 넘기

AI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 경험률이 낮은만큼 부자 10명 중 2명(22%)만이 AI를 활용한 자산운용/투자관리 서비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경험해본 경우 긍정 반응은 41%로 크게 높아졌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경험자보다 긍정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실제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다. 자산운용/투자 시 AI를 경험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지난해 금융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 이용자 그룹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의 비중이 더 낮음(6%p)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서비스를 경험한 부자의 인식이 비경험자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점은 향후 관련 서비스가 고도화·확산되고 그에 따라 경험자의 수가 늘게 됐을 때,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앞서 시장에서 확인된 AI 발전과 신뢰의 딜레마가 부자의 인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부자 중 AI 비이용자의 '신뢰부족'이라는 심리적 허들은 생각보다 높아 서비스 이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AI를 경험하게 된 후에도 부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신뢰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MZ세대는 AI 자산관리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기성세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신기술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MZ세대가 베이비붐세대의 자산을 이어받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AI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 AI가 금융 이노베이터(MZ부자)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냐에 따라 AI의 성패는 갈릴 수 있다.

AI 자산관리의 미래



PB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배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괜찮다면 손님들도 반응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B

"손님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배분 등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60대 여, 교사

"정보유출이 우려돼요. AI도 아직은 능력검증이 아직 안되서..하지만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테고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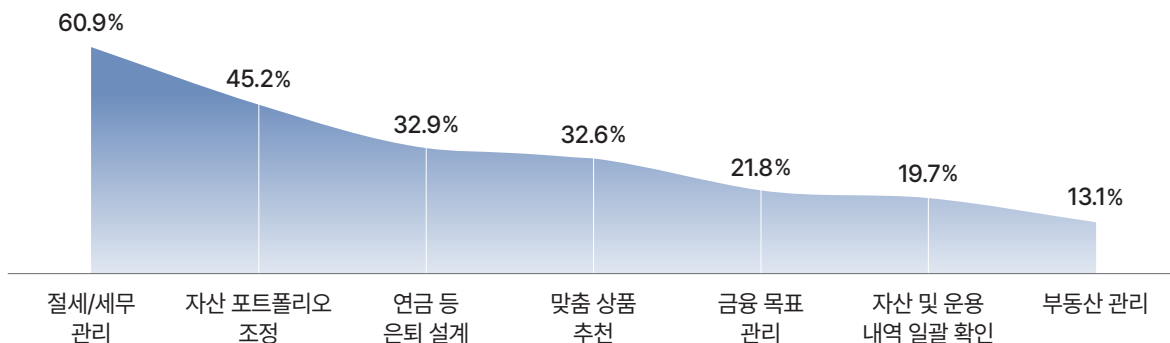
30대 남, 사업

"GPT가 하는건 믿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활용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AI를 활용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했다. 특히 절세나 세무 상담은 부자의 필요가 높지만 금융의 부가 영역으로 여겨지고 매번 고려해야할 사항도 바뀌므로 AI를 활용해 정확히 계산하고 쉽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는 듯 했다. 뒤이어 폭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거나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 후 재정설계를 할 때도 AI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부자는 금융거래시 특히 안전에 민감하고, 물리적 확증과 정서적 공감을 중시한다. 따라서 AI가 휴먼터치를 대체한다는 것은 선부른 예견일 수 있다. AI가 인적서비스를 보완해 상호작용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관리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향후 AI의 진화를 예측하기 위해 부자와 AI의 소통을 지켜봐야겠다.

AI 활용 서비스 기대 분야





PART 3

SPECIAL

· 부자의 결혼



MARRIAGE OF THE RICH

부자의 결혼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결과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이었으며 출산과 양육 부담(15%), 고용 상태 불안정(13%)이 뒤를 이어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임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자금 부족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자는 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 부자의 결혼 과정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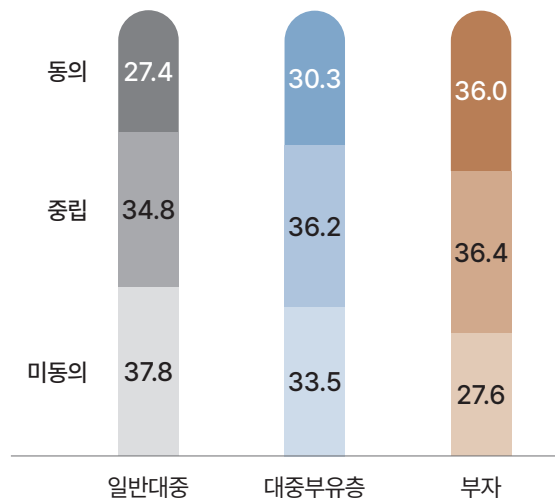
Part1. 결혼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 선택의 기준

**‘결혼은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에
동의(36%)가 반대(28%)보다 많아
일반대중과 대중부유층은 동의보다 반대 ↑**

자산규모에 따라 결혼의 필요에 대한 동의율에 차이를 보였다. 일반대중(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은 27%,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0억 원 미만)은 30%,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는 36%가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에 동의해 자산이 많을수록 결혼의 필요에 대한 동의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은 꼭 해야 한다’에 미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38%, 34%, 28%로 자산 규모에 비례해 감소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보유 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자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동의, 대중부유층과 일반대중은 각각 40%, 36%가 동의해 결혼과 마찬가지로 출산에 대한 의지도 부자가 일반대중이나 대중부유층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



결혼은 현실이다!

배우자의 소득보다 집안의 경제력을 더 중시

과거 왕과 왕세자가 배우자를 구할 때 좋은 후보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양반 사대부들이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금혼령을 내렸었다.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명문의 후예이되 부친의 지위가 높지 않은 집안이어야 했으며, 나이와 인품 및 용모 또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참고로 ‘간택’은 정확히 식별하여 판단함이라는 불교용어로 조선시대에는 혼인상대 후보를 가려 뽑기 위해 총 세번의 행사-초간택, 재간택, 삼간택-를 치렀다. 그만큼 배우자를 고르는데 신중을 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자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크게 배우자 선택 요소를 배우자의 집안과 배우자 개인으로 나누어 보면 부자는 집안을 30%, 일반대중은 20% 정도 고려했다. 부자가 일반대중보다 배우자의 집안을 좀 더 본다는 의미이다. 부자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소득 수준(26%)보다도 집안의 경제력(48%)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일반대중은 집안의 경제력보다 예비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더 많이 고려했다.

부자는 사랑과 신뢰를 제외하고도 약 6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사랑과 신뢰 외 특별히 고려하는 조건이 없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일반대중은 14%가 사랑과 신뢰면 충분하다고 했으니 상당한 차이이다. 가장 우선시 하는 것

배우자 선택 시 필수 요건 (복수응답)

		부자의 배우자 요건 TOP3	부자	일반대중	차이
배우자의 집안	가족 분위기(이혼 이력, 화목함 등) TOP2		56.5%	50.0%	1.1배
	집안의 경제력 TOP3		47.8%	19.0%	2.5배
	부모의 지역(고향)		26.1%	1.7%	15.1배
	가족 구성(양친, 형제자매 유무 등)		26.1%	15.5%	1.7배
	부모의 사회적 지위(직업)		13.0%	13.8%	0.9배
배우자 개인	성격(성품) TOP1		60.9%	74.1%	0.8배
	외모 TOP3		47.8%	39.7%	1.2배
	가치관		43.5%	48.3%	0.9배
	나이		34.8%	29.3%	1.2배
	건강/병력(질병)		34.8%	25.9%	1.3배
	직업(전문직, 사업 등)		30.4%	31.0%	1.0배
	주량/버릇/습관		30.4%	37.9%	0.8배
	종교		26.1%	24.1%	1.1배
	소득 수준		26.1%	27.6%	0.9배
	혼인 이력(초혼/재혼 여부)		26.1%	32.8%	0.8배
	취미		26.1%	32.8%	0.8배
	학력		21.7%	15.5%	1.4배
	형제/자매 중 서열(장남, 무남독녀 등)		13.0%	5.2%	2.5배
	해외 거주 경험/계획		4.3%	5.2%	0.8배
	사랑/신뢰 외 특별히 고려하는 조건 없음		4.3%	13.8%	0.3배

은 성품(성격)(61%)이었다. 다음으로 가족의 화목함(57%), 집안의 경제력=외모(48%), 가치관(43%), 건강=나이 (35%) 순이었다. 일반대중도 성품(74%)과 가족의 화목함(50%)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집안의 경제력(19%) 보다는 주량/버릇/습관(38%), 취미나 혼인 이력(33%)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점에서 부자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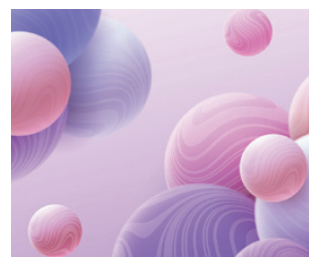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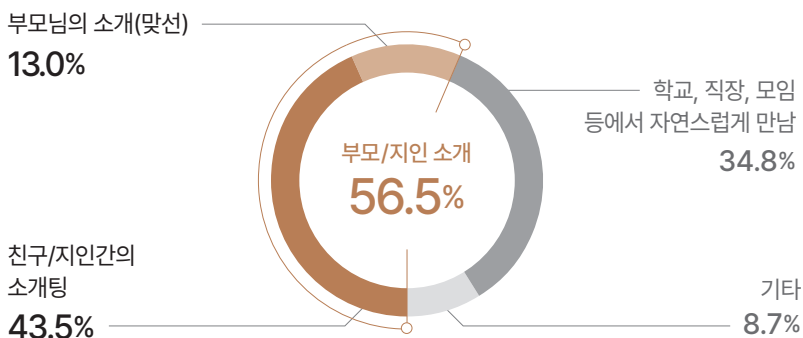
부자와 일반대중간 항목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또 다른 시각차가 관찰된다. 부자와 일반대중간 응답률 격차가 큰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고려한다는 응답률 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한다. 부자는 26%가 부모의 고향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대중은 2%만의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집안의 경제력과 형제·자매 내 예비 배우자의 서열이다. 부자가 2.5배 더 높은 수준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부자가 배우자 선택 시 집안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Part2.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만추보다는 소개팅이나 맞선으로 지금의 배우자 만나

부자의 절반 이상은 친구나 지인 또는 부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친구나 지인의 소개팅이 44%, 부모님의 소개가 13%로 약 60%가 '소개'를 통해 만났고,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35%였다.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전문가(기관)를 통해서 만났다는 응답은 없었다. 일반대중은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비중이 43%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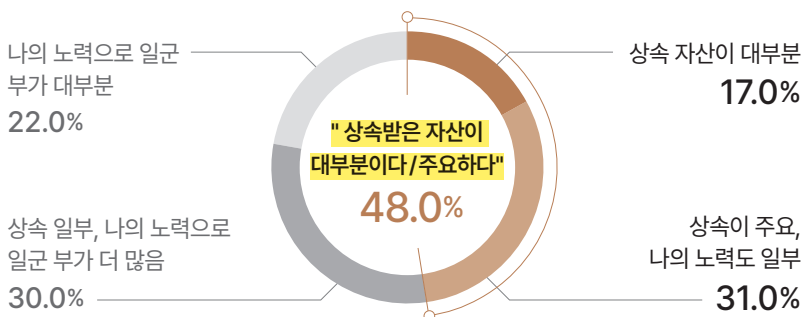
배우자 만남 계기



부자 신혼가구의 절반은 현재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상속분

결혼을 한지 3년 미만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예비)신혼부부 중 약 절반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상속분이었다. 신혼집 자가보유율은 60%로 통계청이 발표한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4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의 원천



30대 남, 회사원

20살 때 부모님께 증여받은 4억 원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첫 투자였고 재밌더라고요. 현재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용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현금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 일반 대중보다 예단, 이바지 등 '집안'을 위한 지출 많이해

결혼과 관련해 부자가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과 일반대중이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살펴보니, 부자와 일반대중간 차이가 보였다.

부자가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예단, 이바지 등 집안을 위한 것이거나 예물, 신혼집·인테리어와 같이 현실적 필요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앞서 부자가 배우자의 집안을 더 많이 본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반대중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항목은 웨딩촬영, 드레스·메이크업, 혼수 등 당사자들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보다 의미있게 치르기위한 항목들이었다.

예식장소 대관이나 신혼여행은 결혼의 필수 항목인만큼 부자와 일반대중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관련 지출 항목

'집안'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 '너와 나' 당사자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		
부자가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	비슷하게 지출하는 항목	일반대중이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
신혼집·인테리어	예식장소 대여	웨딩촬영
예물		혼수
예단	신혼여행	상견례
이바지		드레스·메이크업

* 부자와 일반대중간 10%p이상 차이나는 항목 기재



30대 남, 사업

"(팬데믹 기간이라)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결혼기념일도 없습니다. 결혼반지만 어머니께서 사주셨구요, 현재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꼭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고싶을 때 어느 나라로든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30대 남, 회사원

"예물은 양가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40대 여, 전문직

"양가 부모님 도움 덕분에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집은 남편이 준비했고 저는 집값의 10%를 예단으로 드리고, 혼수로 집을 채웠구요."

임신/출산 축하금 평균 1,212만원!

부자 (예비)신혼부부는 임신/출산 격려금으로 부모로부터 평균 1,20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신혼부부의 부모에게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축하금 또는 용돈을 어느정도 줬는지(줄지) 물어본 결과다.

이 외에도 자녀 또는 사위/며느리의 생일 축하 명목으로 평균 264만원, 손자녀의 졸업/입학 축하금으로는 평균 361만원을 준다고 응답했다.

상황별 자녀/손자녀에게 준 축하금

		
손자녀 임신/출산 축하금	자녀 또는 사위/며느리 생일 축하	손자녀 졸업/입학 축하
1,212만원	264만원	361만원



부자 10명 중 8명 결혼 후 정서적 만족도(안정감) 상승

결혼 이후 정서적 안정감을 비롯해 각종 인간 관계, 사회활동 및 취미/여가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물어본 결과 부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언급한 항목을 포함한 9개 항목 모두에서 부자가 일반대중보다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부자는 80%에 육박해 결혼 후 대부분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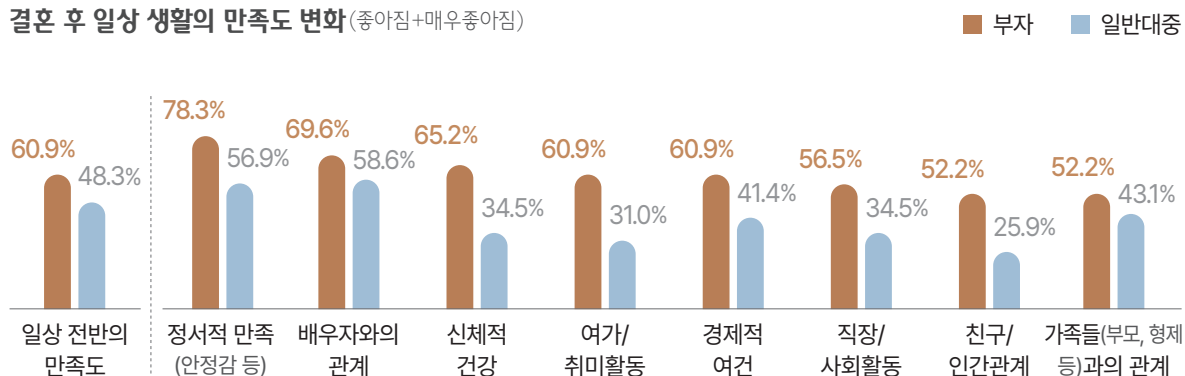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결혼 후 일상 전반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서적 만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꼼꼼하고 현실적인 관점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40대 남, 사업

“결혼하고 일상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더 좋구요. 부모님께서 와이프와 아기에겐 용돈도 많이 주십니다. 하하하”

결혼 후 일상 생활의 만족도 변화 (좋아짐+매우좋아짐)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인생의 다음 페이지도 하나은행과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모바일에서 상담 예약하기

1599-1478

전화로 상담 예약하기



전문가와의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 노후 설계 상속·증여 기업 승계

하나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4-광고-08891호(2024. 10. 25) / CC브랜드241025-0279

2025 KOREAN WEALTH REPORT 17th EDITION

발행일	2025년 4월(통권 17호)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집필진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윤선영 팀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황선경 연구위원 하나은행 PB사업부 김수형 차장 하나은행 PB사업부 김아람 과장 하나은행 PB사업부(前) 이동철 과장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소	(주)광문당
문의	02-2002-2626 skhwang@hanafn.com

본 보고서에서는 부자, 대중 부유층, 일반대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분석했습니다.

1. 부자 :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2. 대중부유층 :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
3. 일반대중 : 금융자산 1억 원 미만 보유자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조사방식

1. 하나은행 PB 및 손님 인터뷰

조사기간 2024.12
조사인원 19명

2.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4.12
조사인원 총 3,010명
부자 884명
대중부유층 1,545명
일반대중 581명

*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내 재산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새 출발
하나 유연대용신탁

손님의 소중한 재산과 고귀한 가치를 손님의 뜻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1566-8004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리빙트러스트 바로가기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컨설팅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달 케어 솔루션



유연대용신탁 15년 노하우

2010년 출시 이후 15년간 축적된
상속 집행 노하우와 솔루션



1:1 맞춤형 상속설계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맞춤 플랜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 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재산 관리

※ HANA THE NEXT(하나더넥스트)는 하나금융그룹의 (NEW)시니어 특화 통합브랜드입니다. ※ 하나 리빙트러스트 서비스는 유연대용신탁의 하나은행 고유 브랜드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예약 접수 후 익영업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확정 전화를 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6시)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리빙트러스트 상담예약(1566-8004)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021호(2025.01.08 ~ 2025.11.30) ※ CC브랜드 241224-0278 ※ 한국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24-05259호(2025-01-02~2025-11-30)

세계적인 프라이빗 뱅킹 名家

Hana Club1



Hana Gold Club



Hana VIP Club

우리가족의 은퇴설계 상속증여 솔루션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